

# 셰익스피어의 초자연적 요소

## - 배경적 지식을 중심으로 -

이 경 식  
(서울대학교 영문과)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가 생존한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에는 혼령(ghosts and apparitions), 요정(fairies), 마녀(witches and demons)와 점성술(astrology)에 대한 믿음들이 모든 계층에 침투해 있었다. 자연 셰익스피어는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이러한 다분히 미신적인(superstitious) 민간 믿음(popular beliefs/spiritualism) 혹은 민속 믿음(folk-lore)을 그의 극작품들에 이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초자연적인 것(the supernatural)이란 자연의 것들을 초월하는 법과 힘에 지배를 받는 현상들, 곧 혼령, 요정 및 마녀와 그들의 초자연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민간 믿음들의 일면을 반영하는 내용을 한 군데도 지니지 않은 셰익스피어의 극작품은 한 편도 없을 정도이다. 환영(visions)의 형태로 유명이 나타나는 것은 *1H6*, *2H6*, *H8*, *Macbeth* 등 여럿이고, 타계한 사람의 영(spirit)이란 의미의 혼령은 *R3*, *JC*, *Hamlet*, *Macbeth*, *Cymbeline*에 등장한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36, 7편의 극작품들 중에서 초자연적 요소가 극의 액션에 참여하여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것은 *R3*, *MND*, *JC*, *Hamlet*, *Macbeth*, *Tempest* 등 5개 극이다. *R3*, *JC*, *Hamlet* 및 *Macbeth*에는 혼령이, *MND*와 *Tempest*에는 요정이, 그리고 *Macbeth*에는 마녀가 등장한다. 이렇게 셰익스피어는 혼령, 요정과 마녀들 혹은 그들의 마술(witchcraft)을 다 활용하였으나 혼령이야말로 그의 극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이용한 형태의 초자연적 요소이다.

### I

우선 이들 초자연적 요소들에 대한 셰익스피어 혹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민간 믿음들을 살펴본다. 민속적 미신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존재했고, 과학의 발달이 그 극에 이르다시피 한 20세기 말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얽힌 이야기들이 16, 17세기 영국에 크게 번성하였다. 마술에 대한 믿음은 셰익스피어 시대 미신의 가장 과도한 국면을 보였다. 위로는 임금에서 밑으로는 필부필부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의 영국인들은 마술의 실재(reality)를 의심하지 않

왔다.

이러한 미신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국민의 의식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일념으로 Reginald Scot(t)가 1584년에 *The Discoverie of Witchcraft*를 출판했으나 당시 Scotland의 James VI세는 마술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Scot를 반박하는 마술론(악마론) *Daemonologie*를 저술하여 1597년에 출판했다. 서문에서 James 왕은 그가 마술론을 저술한 이유가 그의 시대의 저주받을 두 사람의 의견들에 맞서기 위해서였다면서 그 중의 한 사람인 영국인 Scot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공개적인 저술을 통해서 마술의 존재를 부인하고, 유령들을 부인함으로써 고대 사두개 사람들의 잘못을 지속하고 있다('against the damnable opinions of two principally in our age, wherof the one called SCOT an Englishman, is not ashamed in publicke print to deny, that ther can be such thing as Witch-craft: and so mainteines the olde error of the Sadducees, in denying of spirits')고 맹공을 가했다.<sup>1)</sup> 그리고 그가 1603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을 이어 영국의 왕위에 오르면 왕으로서 첫 번째로 한 일중의 하나는 'Hangman'에게 명하여 Scot의 책을 분서하는 것이었다. Scot와 James 왕은 둘 다 독특한 개신교도들(Protestants)이며, 마술다파에 온갖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그 근본바탕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마술의 실체를 부인하고 후자는 이를 굳게 믿은 차이가 이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은 마술의 민간믿음이 얼마나 당시 보편화되어 있었는지의 일단을 어른들이 애들에게 귀신, 요정, 도깨비, 악마, 마술사들의 이야기로 그들을 무서워 떨게 했다고 기술한 Scot의 한 대목에서 여실히 알 수 있다('... in our childhood our mothers maids haue so terrified vs with an ouglie diuell hauing hornes on his head, fier in his mouth, and a taile in his breech, eies like a bason, fanges like a dog, clawes like a beare, a skin like a Niger, and a voice roring like a lion, whereby we start and are afraid when we heare one crie Bough: and they haue so fraied vs with bull beggers, spirits, witches, vrchins, elues, hags, fairies, satyrs, pans, faunes, sylens, kit with the cansticke, tritons, centaurs, dwarfes, giants, imps, calcars, coniuors, nymphes, changlings, *Incubus*, Robin good-fellowe, the spoorne, the mare, the man in the oke, the hell waine, the fier-drake, the puckle, Tom thombe, hob goblin, Tom tumbler, boneles, and such other bugs, that we are afraid of our owne shadowes: in so much as some neuer feare the diuell, but in a darke night: and then a polled sheepe is a perillous beast, and manie times is taken for our fathers soule, speciallie in a churchyard, where a right hardie man heretofore scant durst passe by night, but his haire would stand vpright. For right graue writers report, that spirits most often and speciallie take the shape of women appearing to monks, &c: and of beasts, dogs, swine, horsses, gotes, cats,

1) King James VI of Scotland, *Daemonologie, in Forme of a Dialogue, Diuided into three Bookes* (Edinburgh, 1597), sig A2<sup>v</sup>.

haire; of fowles, as crowes night owles, and shreeke owles; but they delight most in the likenes of snakes and dragons'). 그러나 이와 같은 무신앙적인 작태와 악귀들은 하나님의 덕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일부 잊혀지고, 나머지 환각들도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곧 발각되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Well, thanks be to God, this wretched and cowardlie infidelitie, since the preaching of the gospell, is in part forgotten: and doubtles, the rest of those illusions will in short time (by Gods grace) be detected and vanish awaie')고 Scot는 확신하였다.<sup>2)</sup> 이처럼 Scot는 초자연적인 요소들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그 존재를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영국의 어린이들은 할머니, 유모, 하녀 등으로부터 바람이 뿜어 소리내며 굴뚝에 부딪치고, 문풍지를 두들기는 낡은 겨울날 밤에 오지직, 오지직 타고 있는 용접실의 벽난로가에 앉아 혼령, 악마, 마녀, 요정 등에 관한 민속적 옛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들은 이러한 기담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이 구전문학은 자자손손으로 전수되었다. 이와 같은 미신적 민속이야기들을 영어로는 나이든 여인들이 해주는 이야기라고 해서 'old wives' tale' 혹은 겨울철 노변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이므로 '겨울 이야기(winter's tale)'이라고도 한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중에도 '겨울 이야기(The Winter's Tale)'란 제목의 극이 있다. 왕비 Hermione가 어린 왕자 Mamillius에게 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일종의 농으로 명랑한('merry') 이야기를 하나 해달라고 청하자 왕자는 겨울에는 슬픈 이야기가 제격이라면서 귀신과 도깨비의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대답한다. 이에 왕비는 그것 좀 들어보자면서 그 귀신들 이야기로 자신을 공포에 떨도록 해보라고 내뽐는다:

Mas. A sad tale's best for winter. I have one  
Of sprites and goblins.  
Her. Let's have that, good sir.  
Come on, sit down, come on, and do your best  
To fright me with your sprites; you're pow'ful at it. (2.1. 25~8)<sup>3)</sup>

Mamillius 왕자가 교회 구내묘지 근처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고 문제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까이 있는 귀뚜라미가 엿듣지 못하도록 작은 소리로 하겠다고 말하니 까 왕비는 그러면 내 귀에다 대고 하라면서 귀를 내준다. 이러한 겨울밤의 노변 이야기들은 특히 16세기 영국에서 그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면 셰익스피어 시대의 혼령, 요정, 마녀에 대한 미신들을 차례로 알아보기로 한다. 한적하고 외진 시골길, 교회구내 묘지(churchyard)와 기타 무덤들, 어둠침침한 귀족의 성처럼 인적이 드문 곳에는 혼령들(선한 영들과 악령들)이 출몰하여 신비스러운

2) Reginald Scot, *The discouerie of witchcraft, VVherein the lewde dealing of witches and witchmongers is notable detected, etc.* (London, 1584), pp. 152~53.

3) 셰익스피어의 본문 인용은 G. B. Evans의 *The Riverside Shakespeare*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4)에서 함.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기록으로 전해지는 혼령의 출현과 이것과 관련된 신비스러운 사건들 몇 가지를 소개한다. Matthew Paris의 *English History*(1259)에는 William Longsword란 한 영국 귀족이 1250년 경에 Nile 강을 따라서 사라센 족과 전투를 하다가 패하여 토막살인을 당하였는데, 그가 사망한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유령이 고국의 모친에게 나타난 이야기가 들어 있다. 이 유령은 거의 뼈대만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모친은 아들의 방패에 새겨진 기장으로 그것이 그녀의 아들임을 식별하고 놀라 뒤로 물러섰는데, 그때 그 혼령이 'It is your son, William, and I have been brought down to honour God's name'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모친은 아들이 혼령의 모습으로 찾아온 사실을 이웃친자에게 말했으나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자 사신이 Egypt에서 와 그녀에게 아들 William의 애석한 종말을 전했다는 것이다.<sup>4)</sup>

Windsor Castle이나 Windsor Forest는 혼령출현이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셰익스피어도 그의 혼령전설의 하나를 *MWW*에서 활용하였다. 사냥인 Herne의 유령은 중세부터 내려오는 전설인데, 살림직이인 그는 범죄 때문에 피소되자 재판을 피하고자 떡갈나무에 목매어 자살했다. 그후 그의 혼령이 그 나무 주변에서 목격되기도 하고, 말 타고 원저 숲을 질주하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혼령은 악령으로서 노려보는 눈과 숫사슴의 뿔들을 지녔으며, 그의 얼굴을 쳐다본 사람들은 발병하거나 재난을 당하는 운명에 놓였다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이 극의 4막에서 Falstaff를 바로 이 사냥꾼 Herne으로 변장시키어 Windsor Park에서 숙녀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가 창피당하는 장면을 삽입하였다.

17세기의 한 팸플릿인 *The Full, True and Particular Account of the Ghost or Apparition of the Late Duke of Buckingham's Father*에 의하면, Buckingham 공작의 혼령이 하인 Parker에게 현신하여 그의 아들 Sir George Villiers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 주지 않는다면, 적어도 사람들이 그에게 지닌 악의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 살지 못할 것임을 아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Parker는 이 사실을 주인에게 전달했으나 그 아들은 개심하지 않고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행동을 취하지 않아 결국 6개월 후에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혼령 이야기는 미래의 재난을 미리 알려서 그것을 예방하고자 혼령이 출현했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이와 유사한 목적의 혼령출현의 또 다른 예는 Charles I와 관련된 것으로서 내란 당시 Strafford 백작의 혼령이 Naseby 전투 전날 저녁에 국왕을 찾아와 패배가 불가피하므로 의회 세력과는 싸우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전설이다. 이 혼령은 캔터베리 대주교인 Laud도 방문하고 그의 악행들을 꾸짖고, 그의 머리가 어떤 피투성이의 풀이 될지를 말해주었다는 것이다. 그후 Charles 왕이 이 경고를 무시하자 결정적인 패전을 겪었다는 것이다.

혼령이 나타나 복수를 외쳤다는 18세기 영국의 기록은 16세기 엘리자베스 시대의 복수비극에 등장하는 복수 혼령을 상기시키고 있어서 흥미를 끌고 있다. 문제의 이

4) Peter Haining, *Ghosts: The Illustrated History* (London: Sidgwick & Jackson, 1974), p. 26.

혼령은 Guildford에 나타났다고 해서 Guildford Ghost로 통칭되고 있다. 그는 런던의 Southwark에 있는 여인숙 The White Lion에서 그의 죽음을 짙짙 흔들어 소리를 냈다고 한다. 이것은 Guildford에 거주하는 Christopher Slaughterford의 혼령으로서 그는 원래 애인을 살해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교살당하는 순간까지도 무죄를 주장한 바 있었다. 그의 원혼은 그가 수감되었던 Southwark의 형무소와 사형선고를 받은 후 잠시 유했던 The White Lion에 출현한 것이다. 그것이 Guildford에 나타나 그의 하인 Joseph Lee와 친구 Roger Voller를 만났을 때는 아주 가공스러운 모습이었으며, 목에는 밧줄을 감고 있었고, 한 손에는 횃불을, 또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매우 애처로운 소리로 'Vengeance, Vengeance'를 울부짖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16세기 복수극인 *The Battle of Alcazar*의 'Three ghosts crying Vendicta'라든가, *The True Tragedie of Richard the Third*에서 혼령이 등장하여 'vendicta'를 외치는 것이라든가, *The Lamentable Tragedie of Locrine*에서 혼령이 'Reuenge, reuenge for blood'와 'Vindicta, vindicta'라고 한다면, *Antonio's Revenge*에서 혼령이 아들에게, 그리고 *Hamlet*의 혼령이 아들에게 각각 'Revenge!'와 'Revenge his foul and most unnatural murder'라고 복수를 당부하는 경우를 상기시켜 준다. 또 혼령들이 투명한 형체를 지닌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신음과 비명, 울부짖는 소리(groaning, bewailing, howling, screaming), 쇠사슬소리 등의 괴음을 내어 사람들이 들도록 했으며, 가족, 친지 및 국가에 닥칠 재난을 예고해 주었으며, 보물이 감추어진 비밀장소를 알려주며, 때로는 자신이 살해된 경위를 폭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점들 역시 King Hamlet의 혼령과 관련된 사항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믿음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혼령을 문학작품에 처음으로 이용한 사람은 Seneca였다. 그는 Tantalus의 혼령과 Thyestes의 혼령을 그의 극작품 *Thyestes*와 *Agamemnon*에 각각 등장인물로 내세웠으며, 또 복수를 위해서 명부에서 지상으로 귀환한 복수혼령(revenge-ghost)으로 만들었다. 이것의 영향으로 위의 예에서 보듯이 16세기 영국의 비극에는 Seneca적 복수혼령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그들 대부분은 Seneca의 본에 따라 복수를 위해, 혹은 자신을 위한 복수를 지켜보기 위해 극에 등장하되 다른 극중인물들과는 격리되어 대화를 나누는 일은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극의 액션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hakespeare와 Marston에 이르면, 특히 이들의 *Hamlet*과 *Antonio's Revenge*에서는 살해당한 자의 혼령이 각각 아들과 처자에 나타나 복수를 직접 명하는 등 대화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극의 액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OED는 혼령(ghost)의 세번째 뜻으로 'The spirit, or immaterial part of man, as distinct from the body or material part'라고 유형적인 육신과 구별되는 사람의 무형적인 부분, 곧 혼(백)을 제시하고 있다. 혼령에 대한 민간 믿음은 인간의 혼백이 인간의 육신에서 분리될 수 있으며, 사후에도 그것이 유지된다는 오래전부터의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혼령의 존재는 어디까지나 믿음의 문제이지 과학에 의해 증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Shakespeare는 Hamlet 왕자를 통해서 사후의 세계를 미지의, 혹은 탐험되지 않은 신비의 나라('The undiscover'd country')라고 하면서 그곳으로부터는 아직 어떤 여행자도 귀환한 적이 없다('from whose bourn/No traveller returns')고 죽음과 저승을 반성했다(3.1. 78~9). 그의 동시대 극작가인 Marlowe 또한 *Edward II*의 Younger Mortimer를 통해서 죽음을 돌아올 수 없는 여행('journey with no return')이란 은유로써 표현했다. Mortimer는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여행자로서 미지의 나라를 탐험하기 위해 이제 가노라('as a traveller/Goes to discover countries yet unknown')고 말한다(5.4. 65~6). 이러한 은유는 16세기 영국의 이 두 극작가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성경과 Seneca도 이미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기 때문이다. 'Job'의 10장 21절은 '잠시후 나는 갑니다. 영영 돌아 올 길 없는 곳, 캄캄한 어둠만이 덮인 곳으로 갑니다'라 적고 있다. <외경>의 '지혜서'도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을 아무도 본 적이 없다'(ii, 1)를 담고 있다. Seneca는 그의 *Hercules Furens*의 Chorus를 통해서 죽음의 나라로 일단 온 다음에는 아무도 그곳에서 귀환할 수 없다('unde numquam/cum semel venit, potuit reverti', 865~66; whence never, when once come, can be returned)고 했다. 그는 또 *Hippolytus*의 Phaedra를 통해서 염라대왕은 지상을 일단 떠났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Regni tenacis dominus et tacitae Stygis/nullam relictos fecit ad superos viam', 625~26; The overlord of the fast-holding realm and of the silent Styx has made no way to the upper world once quitted)고 했다.

18세기의 Dr Johnson도 혼령의 존재 여부는 믿음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의 전기의 1778년 3월 31일 화요일자에서 James Boswell은 Dr Johnson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5천년이 경과했으나 누구의 혼령도 사후에 난타난 예가 있었는지가 아직 미결로 되어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면서 논리적으로 따지면 반대의 결정에 이르고, 믿음으로 임하면 찬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한 말을 기록했다.<sup>5)</sup> Johnson은 1778년 4월 15일(수요일)에도 이와 유사한 말을 한 것으로 기록되었다('this is a question which, after five thousand years, is yet undecided; a question, whether in theology or philosophy, one of the most important that can come before the human understanding').<sup>6)</sup>

심신이 몹시 허약한 사람과 신경쇠약자가 가끔 허깨비를 보는 것은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허깨비(visionary/illusion)는 어디까지나 상상력이 만들어 내는 가공적인 것으로서 실존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존한다고 믿은 혼령들이다. 이 믿음은 죽은 사람들의 혼령들이 생존시의 모습을 하고 그들이 살던 고장을 찾아와서 아직도 살아 있는 가족과 친지들 앞에 출현한 것을 증거하고 있다.

5) James Boswell, *Life of Johnson*, ed R. W. Chapman. A New Edition corrected by J. D. Fleeman (London: Oxford Univ Press, 1970), p. 900.

6) 동, p. 951.

## II.

위에서 언급한 Scot의 *The Discoverie of Witchcraft*(1584)와 King James의 *Daemonologie*(1597)는 이들과처럼 역시 Protestant였던 Ludwig/Lewes Lavater의 *De Spectris*(1572)(R. H.가 같은 해에 영역하여 *Of Ghostes and Spirites Walking by Nyght*란 제목으로 출판함), 이에 대한 개톨릭교의 회답인 Le Loyer의 *III Livres de Spectres ou Apparitions et Visions d'Esprits*(1586)(이것은 Z. Jones에 의해서 1605년에야 비로소, 그리고 그것도 BK I만이 영역됨) 및 Scot의 'Discourse vpon Diuels and Spirits'(*The Discoverie of Witchcraft*의 1665년 판에 처음 수록됨)와 더불어 Elizabethan spiritualism의 풍성한 보고인 source-books들을 구성하고 있다.

이 source-book들의 내용 중에서 Shakespeare의 극과 관련된 것들을 죽은 사람이 혼령의 모습으로 지상에 과연 귀환할 수 있는냐는 쟁점을 중심으로 연대순으로 간략히 소개한다. Lewes [= Louis/Ludwig] Lavater가 1570년에 출판한 *De Spectris, lemuribus et magnis atque insolitis fragoribus*를 R. H.가 영역한 *Of Ghostes and Spirites Walking by Nyght*(1572; 2nd ed, 1596)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제1부의 1장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이 풀이되어 있다. *spectrum*[spirit]은 우리 눈에 나타나는 모양('shape') 혹은 형체('forme')이며, '*visum*'은 상상('imagination')이나 광경('shew')으로서 우리가 잘 때나 깨어 있을 때 무엇을 본 것과 같이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이를 'a fantassie, or vaine imagination(환상 혹은 부질없는 상상)'으로 불렀다고 Cicero는 말한다. 이것은 라틴어 *visiones*에서 왔다는 것이다. *genius*(genij)는 모든 장소, 물건 및 태어날 때의 모든 사람이 지배를 받게 되는 자연신('naturall god')이다.<sup>7)</sup>

제2부의 17장과 18장에서 Lavater는 이 책의 핵심이며, 그의 논지인 악마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우선 그는 악마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들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모습들로 나타나고, 짐승과 새들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며, 검은 개, 말, 올빼미와 같은 것으로도 나타나는 일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며, 또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도 한다고 했다('But it is no difficult matter for the deuill to appeare in diuers shapes, not only of those which are alive, but also of deade menne...in the fourme of beastes and birdes ... to appeare in the likenesse of a blacke Dog, a horse, an Owle, and also to bring incredible things to passe', p. 167). 그리고 악마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악을 피할 때 기뻐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상 그를 슬프게 하는 것도 없을 것이라('The Dyuell is not pleased when wee doo good, and auoide euill: nothing woulde greeue him more, than that

7) Lewes Lavater, *Of Ghostes and Spirit Walking by Nyght* (trans, R.H., 1572), ed with Introduction and Appendix by J. Dover Wilson and May Yardley (Humphrey Milford and Oxford at the University Press, 1929), pp. 1-3.

we should liue according to the prescripte woorde of God', p. 171)고 그는 말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고 명하는 자들은 악마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유행들은 진실을 말하지만, 악마는 거짓말쟁이며, 예수는 이들을 거짓의 아버지로 부른다는(Therefore they are not Diuels which bid vs do good, and eschue euill. Moreouer, those Spirites speake truthe, but the Dyuell is a lyer, and is called by Christe, the father of lyes', 상동) 것이다.

스위스의 개신교 신부 Lavater의 영역자 R. H.는 서문에서 복음이 교회에서 설교되기 시작한 이래 혼령에 관한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견해들에 당황하고 일부는 개톨릭 교도들의 악마적인 이론에 아직도 속고 있다('some are still deceiued by the deuillish doctrine of the Papists')면서 이런 차원에서 그의 번역서는 많은 사람에게 이롭고, 아무에게도 불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Profitable therefore [this treatise] is and shalbe, no doubt, vnto many, and disprofitable vnto none')고 했다.

약 14년 후에야 Lavater는 비로소 개톨릭 교도의 반론을 받았다. 프랑스인 변호사 Pierre Le Loyer는 1586년에 출판한, 그리고 여왕에게 헌정한 *III Libres de Spectres ou Apparitions et Visions d'Esprits, Anges et Demons se monstrans sensiblement aux hommes*에서 Lavater에 도전했다. Le Loyer는 1605년에 나온 재판에서 개톨릭 세계는 완벽한 유행학이 나오기를 오래 기다렸으며, 이제 그것을 제시할 시기가 성숙되었다고 했다. 이 책은 Z. Jones에 의해서 *A Treatise of Specters or straunge fights, Visions, and Apparitions appearing sensibly vnto men. Wherein is deliuered the Nature of Sprites, Angels, and Diuels: their power and properties: as also of Witches, Sorcerers, Enchanters and such like*란 제목을 갖고 1605년에 영역되어 나왔다.

이 번역은 여러 가지 점에서 원문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 흠이다. 우선 판권등록란에는 이 번역서가 Le Loyer의 4개서('four books') 모두를 번역할 것이라 했으나 제1서만이 번역되었고, 초판을 번역대상으로 삼았으면서도 번역서의 제목은 재판의 것을 취했다. 그리고 이 제1서는 Le Loyer의 서문에 불과한 준비단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 그의 핵심인 죽은 사람의 귀환 가능성에 관한 내용은 그의 논지가 무르익는 뒷부분에 가서야 나온다.<sup>8)</sup>

Jones는 그의 번역서를 여왕을 숭계한 James 왕에게 헌정했다. 그의 헌정사와 서문은 국왕의 호감을 사려는 다분이 정치적인 것으로서 야점으로 일관하는 인상을 주며, 원저의 핵심골자가 'spectres', 구체적으로 사람이 사후에 연옥에서 혼령으로 지상에 돌아올 수 있다는 요지의 반 Lavater 논을 간파하고 James 왕의 주제인 악마들을 언급하고 있다: 'Because your Maiestie hath heretofore most religiously and

8) May Yardley, 'The Catholic Position in the Ghost Controversy of the Sixteenth Century, with special reference to Pierre Le Loyer's *III Liures des Spectres*(1586)', in *Of Ghostes and Spirites Walking by Nyght*, p. 227.



learnedly written of this Argument, and hath concluded, that Witches and the generations of Vipers, and the seede of the wicked Serpent: whose head you haue also bruised, both by diuine lawe, and by Act of Parliament. Wherefore seeing this Straunger is not onely a professed foe to all these damned artes and diabolicall illusions of Witches, Sorcerers and Coniurers and to all their faouours and adherents: but like a stoute and most worthie Champion, hath also ouerthrowne all their forces and troden their defences vnder foote, (therefore) your Highnes can best defend it'(p. 228).

Le Loyer의 책이 표면상으로는 그의 말을 빌리면 육신을 가진 것 외에는 유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특정한 고대 철학자들, 무신론자들 및 방종주의자들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서('to confute certaine auncient Philosophers, Atheists, and Libertines who did hold and maintaine this opinion, that there were not any substances in being, but such only as were corporall and having bodies')였지만 내막적으로는 Lavater를 포함한 일부 피팍한 정신이상자들이 새로운 독단들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이 사후에는 존재를 갖지 못한다고 그들의 혼령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에피큐어들의 잘못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밀히 집어넣으려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certaine peruerse spirits and brainsicke persons of our age, who haue inuented most strange and variable opinions: as also agaynst some new Dogmatists, who to the intent they might secretly insinuate ... into the minds of men, an error of the Epicures: that the soules of men haue no being after death, haue altogether denied their apparition'(p. 229).

Jones의 영역본은 'spectre'의 정의로 시작하고 있다: 'A Specter, or Apparition, is an Imagination of a substance without a Bodie, the which presenteth it selfe sensibly vnto men against the order and course of nature, and maketh them afraid(유령은 육신없는 상상의 물질로서 자연의 질서와 과정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현신하여 그들을 두려워하게 함)'; 'The Specter hath a substance hidden and concealed, which seemeth to moue the fantastique body, the which it hath taken(유령은 숨겨지고 가려진 물질로서 그것이 취하고 있는 환상적인 몸체를 움직이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 유령들은 알맹이가 없고 손으로는 다룰 수 없다는 점에서 육신들과는 다르다면서 저자는 이 유령들의 실체(reality)를 부인하는 계몽인들을 물질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로 규정했다. 또 그는 우울증, 열병 등으로 몸이 쇠약한 사람들은 실존하지 않는 많은 것을 상상하게 만들 수 있다('abundance of Melancholy, and Choler, frensie, feuers and the debilitie or corruption of the senses...in any body, may make them to imagine many things which are not')고 했다. 이러한 병자들은 악마들과 기타 유령들을 본 것으로 생각한다('such as happen to be attainted with maladies, do think that they haue seene Diuels and other such like Specters')고 했다(pp. 229~30). Le Loyer는 육신의 형체(corporal form)만을 믿고, 그 이외의

영(spirit)의 존재를 부인하는 Sadducees와 Epicures의 논거를 반박한 후에 천사들과 악마들이 육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의 논지들을 공격했다. 그는 육신에서 갈라져 나온 영('a disembodied spirit')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기 위해서 육신을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인간처럼 혼육이 합해지지 않는 못한다고 했다(pp. 230~31).

Le Loyer는 Lavater의 저서의 BKI에 나오는 'to hear the noyse of boystrous winde, or violent tempeste, the sparkling of instruments, and also the jangling of belles, when as in deede these things are not so, but only chaunce by default of hearing'을 'by reason of their hearing violated and corrupted...they here a buzzing or whistling winde, a trembling and shaking of flaming fire, a trilling noyse of some running fountaines and the roaring of some violent watercourse'란 말로 모방하는 등 근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Lavater를 비롯한 개신교도들의 저서들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일을 했다('I will not assure the same to be true, no more than I will assure many things to this purpose, which Slaydam, Lauater and other Protestants haue set downe in their Writings'). Le Loyer는 잘못된 상상과 환상들로 찬 머리를 지닌 미신적인 자들은 실제로는 보지 못한 것들을 환영들(visions)로, 숲을 악귀(fiend)로 보며, 식탁에 앉을 때 [Macbeth가 Banquo로 잘못 보듯이] 살해자는 살해당한 자의 얼굴을 보거나 새소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p. 232)고 했다. 이러한 내용의 Le Loyer의 제1서를 번역하고 이제 혼령들과 유령들의 문제로 옮겨가는 것이 요망된다고 하고서는 여기서 그의 번역을 끝냈다.

Le Loyer의 제2서의 내용도 Lavater의 것과 중복되는 것이 많다. Le Loyer는 자신이 문제들을 많은 이유들과 본보기들로써 증명했기 때문에 유령들과 기타 자연을 초월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는 자신이 이미 천사들과 악령들이 출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면서 영혼들도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현신할 수 있으며, 우리를 방문할 수 있음도 보여주겠다고 독자를 제3서로 인도한다. 이 제3서가 말하자면 그의 논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p. 235).

Le Loyer는 혼령의 귀환이란 믿음에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리는 오직 신학자들의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이며, 영혼들이 육신에서 분리된 후에 과연 지상으로 귀환하여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느냐에 답할 수 있는 자신을 보이지 못했다. 그는 다만 카톨릭 교회의 박사들의 공통된 의견을 안내자('my guide and star')로 삼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혼령이 귀환하여 자신의 집을 내달라고 한 1575년의 프랑스의 한 소송건을 언급한 후에는 Lavater에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자신은 이교도들, 유대인들, 마호메트교인들의 믿음을 그대로 제시하는 데 만족했으나 이제부터는 영혼들이 나타날 수 없다고 그리고 그 결과로 연육을 부인하는 데로 인도하도록 *de Spectris*의 제2서에서 명시적으로 말한 스위스의 목사 Lavater의 잘못을 고쳐놓겠다고 선언한다(pp. 237~38).

Le Loyer의 반론은 대충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천당과 지옥 외에 죽은 자의 영이 거하는 제3의 장소, 곧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에 충분히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연옥이 있다. 둘째, 혼들이 사망시에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어도 정화될(purged) 때까지는 구원받지 못하므로 생존자들의 기도가 그 영혼이 구원(redemption)을 받는 데 효과가 있다. 셋째, Calvin과 Lavater는 St John Chrysostom의 권위라는 잘못된 바탕위에서 예수의 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특권으로 혼이 지상으로 귀환할 수 있다고 설교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악마가 일부 줄개들을 귀환시키어 인간의 영혼들을 거짓말로써 해치게 되므로 귀환이 많은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설사 귀환이 허락되어도 내세를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자를 위안하고, 기도에 의한 그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이다(p. 239).

Le Loyer의 결론은 영혼들이 무덤속에 묻혀있는 그들의 육체를 지니고 귀환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특명으로 이 세상으로 돌아와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진짜 육체가 아니라 실체가 없는 몸('not a real but a phantasmal body')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참된 육체를 지니고 돌아온다고 믿는 자들은 자신들을 크게 속이는 것이 되며,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입는 옷이 공기로 된 환영에 불과하기 때문이라('for it is only a phantom of air that they clothe themselves in, to appear visibly to men')고 Le Loyer는 주장한다(p. 241). 그는 Lavater와 그의 추종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진실은 천사들과 악마들의 유령들과 마찬가지로 혼령의 유령도 있다('there are Spectres of Souls as well as Spectres of Angels and Demons')고 주장한다(p. 245).

마지막 제5서에서 Le Loyer는 천사, 악마 및 영혼의 출현을 구별하는 법을 언급하고 있다. 악마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듯, 사람을 기독교에 인도하는 듯, 머덕을 설교하는 듯, 심계명을 권하는 듯하나 이것은 가식이요, 기만이요, 탈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선한 천사는 빛나고 밝은 빛 속에 나타나지만 악마의 불빛은 흐리고 그림자로 차 있고, 유황불 연기가 섞인 불빛('dim and full of shadows, mingled with flames and sulphurous smoke')이라는 것이다. 악마는 밥과 인적이 드문 곳, 절벽, 숲과 사막을 선호한다는 것이다(p. 247).

요컨대, Lavater와 Le Loyer의 견해차이 중에서 세익스피어 극들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혼령의 귀환(ghostly visitation)의 문제이다. 개신교도들과는 달리 케토릭교도들은 기존의 원시적 민간 믿음과 관련된 이 문제를 구태어 이단시하여 혁신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나 개신교도들은 대륙에서는 Calvin, Bullinger, Sprenger, Lavater 등이, 영국에서는 Scot, R. H. Deacon and Walker, James I 등이 앞장 서서 정착된 이 민간 믿음을 타파하여 뿌리를 뽑으려 했다. 1665년에 나온 Scot의 재판에는 작가미상[Scot 자신의 유필?]의 *Treatise upon the Nature and Substance of Spirits and Divels*가 추가되기도 했다. 케토릭의 영혼귀환론은 어디까지나 함축적인 것이고 조직화된 이론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함축적인 이론은 물론 성 오거스틴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의 해설자인 St Thomas Aquinas는 *Summa Theologica*에

추가한 부록 'Supplementum'에서 이와 관련된 다음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 죽은 후에 영혼은 물질에서 분리되므로 그것이 혼령으로서, 즉 유형적인 모양을 지니고 나타난다는 것은 일반 자연법칙에 어긋난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 혼령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천당, 연옥 혹은 지옥에서 나타날 수 있다. [Le Loyer는 지옥에 갇힌 'the damned'는 지옥에 영원히 갇혀 있어서 귀환할 가능성이 없다는 데 Lavater와 Calvin과 의견을 같이한다.] 셋째, 혼령은 선한 천사일 수도 있고, 악한 천사일 수도 있다[Le Loyer는 모든 혼령들이 선한 천사들이거나 악한 천사들이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Augustine이 믿었다는 Lavater의 주장을 반박했다](p. 224).

King James는 Scot를 마녀들과 그들의 마술을 믿지 않는 회의주의자로 낙인찍어서 그의 책을 태우도록 조처했지만 그는 열렬한 기독교 신자(Protestant)로서 마녀들과 마술의 만연과 마녀/마술의 민간승배사상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병폐를 경계하는 한편 죄없는 미신적 노파들을 마녀로 무차별적으로 잡아다가 잔인하게 처형하는 처사를 증오했을 뿐 마술의 존재를 철저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후를 포함한 세상만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우리의 주 예수의 소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박, 눈, 천둥, 번개, 비, 폭풍우들과 특히 1565년에 있었던 서리 등의 악천후를 비롯하여 사람들이 겪는 불행들이 마치 마녀의 뜻('cunning and power')에 의한 것으로 현명한 사회 저명 인사들('many graue and wise men')까지도 신앙심없는 자들은 험사리 믿음으로써 생기는 마녀승배사상, 마녀사냥과 잔인한 마녀 처단을 통탄했던 것이 마녀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Scot의 주장인 것이다('Because I myslike the extreme cruelty vsed against some of these silly souls, it will be said that I deny my punishment at all to be due to any witch whateuer. Truly I deny not that there are witches ... but I detest the idolatrous opinions conceiued of them'). 기실 그의 *The Discouerie of Witchcraft*(16서, 249장으로 된 방대한 책)의 BK I, Chap 1은 이런 내용으로 차 있다. 바람을 일으키고, 잠재우는 것은 하나님이며, 바람은 하나님의 것이 마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천둥을 만드는 것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지 결코 마녀나 악마가 아니라는 것이다('certeinlie, it is neither a witch, nor diuell, but a florious God that maketh the thunder'). Scot은 우리가 고통과 불행('afflictions')을 겪을 때 그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으므로 마녀를 탓하지 말고 신에게 자비를 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I서 2장에서 그는 우리가 위안과 충고('comfort and counsell')를 신에게 구하지 않고 악마나 속이는 마녀('cousening witch')에게 가면 안 되며, 요한 복음은 분명히 악마가 맹인의 눈을 열지 못한다고 하는 등 절름발이와 맹인을 낫게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인데도 마녀의 도움을 구하는 비기독교적인 작태를 크게 책했다.

Scot가 Lavater를 포함한 유럽의 많은 신중한 작가들이 영들(spirits)이 여인들이나 기타 가축과 새들의 모양을 지니고 나타난다는 보고를 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일은 이제 하나님의 덕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이래로 일부 없어졌으며, 나머지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곧 발각되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앞서 이미 언급했지만 그는 독일에서 여러 작가들이 Luther 이후 전과는 달리 영들과 악마들이 몸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서 악마들이 '환영들(illusions)'의 모습으로 인간들을 현혹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이래 이러한 'sights, spirits, and mockeries of images'는 증지되었다고 말한다(BK VII, Chap. 15, pp. 152~4).

7서 16장에서 Scot는 보다 단호하게 인간이나 천사에게는 유형물의 창조가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마녀나 악마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오로지 하나님만이 생명과 존재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보이게, 그리고 보이지 않게 만들어진다고 말한다('creation of substance was neuer granted to man nor angell; Ergo neither to witch nor diuell: for God is the onlie giuer of life and being, and by him all things are made, uisible and inuisible', p. 155).

*The Discoverie of Witchcraft*의 1665년 판에 추가된 34개 장으로 구성된 *Discourse upon diuels and spirits, and first of philosophers opinions, also the maner of their reasoning hereupon; and the same confuted*도 영들과 혼들이 원하는 모습의 육신들을 마음대로 지닐 수 있다는 일부 대담한 견해들을 두 페이지 이상이나 할애하여 나열하면서 이를 부정하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pp. 491~2 및 516). 이 글은 혼이나 영들이 육신을 지니고 나타난다는 것이 카톨릭 박사들이 이런 내용으로 말하는 엉뚱한 이야기들을 믿는 나머지 혼과 영들이 천당이나 지옥에서 나올 수 있으며 육신을 지닐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신성모독적이고 엉뚱한 것임을 강조한다는 등, 육신을 지닌다는 등의 말들을 듣고 있으나 연옥설과 더불어 이것들을 불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assuming of bodies by soules and spirits...be...as prophane, absurde and impious as the other...soules and spirits may come out of heauen or hell, assume bodies, beleeuing manie absurd tales told by the schoolmen and Romish doctors to that effect: but we discredit all the stories that they...tell vs vpon their knowledge and credit of soules condemned to purgatorie, wandering for succour and release by trentals and masses said by a popish preest: and yet they in probabilitie are equall and in number farre exceed the other', chap. xxvii, pp. 532~53).

James 왕이 *Daemonologie*에서 밝힌 이 영들에 대한 견해는 매우 분석적이다. 그는 마녀와 마술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영들(spirits)의 문제에 있어서도 회의적인 Scot와는 달리 그것들의 존재를 확고히 믿고 있다. 그는 다만 영들을 모두 악마로 취급할 뿐이다. 그리고 그는 악마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을 지닐 수 있으며, 여러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분에 맞추어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he appeares as he pleases, and as he findes meetest for their humors. ... he appeares to diuers of them in diuers formes', BK II, Chap. 6, p. 52). 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한 그의 태도는 명백하였다. 즉, 악마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악마는 하나님의

정반대이므로 이 정반대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악마의 'falsehood'를 통해서 하나님의 'truth'를, 악마의 'injustice'를 통해서 하나님의 'Justice'를, 악마의 'cruelty'를 통해서 하나님의 'mercifulnesse'를 생각하게 되는 등 하나님의 나머지 본질들과 악마의 자질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2서의 끝에서 세상에는 모든 종류의 영들을 다 부인하는 많은 사두게 파 사람들이 존재한다('But I feare indeede, there be ouer many *Sadduces* in this world, that denies all kindes of spirites', p. 55)면서 Scot와 그의 의견을 추종하는 자들을 함축적으로 비난했다.

James 왕은 3서 1장에서 네 종류의 주된 영들('spirites')을 네 가지 주된 종류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어떤 집이나 외진 곳에 나타나는 영들이고, 두 번째는 특정한 사람들을 따라 다니며, 빈번히 그들을 괴롭히는 영들이며, 셋째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차지하는 영들이며, 넷째는 요정('Fayrie/Phairie')으로 보통 불리는 영들이라는 것이다. 처음 세 종류의 영들은 마술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영들은 실제로는 한 종류이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세 개의 다른 모양들을 취하며, 외관상 서로 다른 행태를 취하여 좋은 종류와 나쁜 종류의 것들이 있는 듯이 꾸민다는 것이다. 무서운 모습으로써 집들에 출몰하는 영들은 *Lemures/Spectra*로, 혹은 그들이 죽은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umbræ mortuorum*으로 불렸다. 이런 영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성경이 확인해 준다고 James 왕은 예언자 이사야를 그 증거로 제시했다. 죽은 자의 육체를 가장한 영들은 문이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오며, 단순한 영일 경우에는 형체가 없는 것이므로 공기가 통하는 곳이면 어디나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James 왕은 셰익스피어의 혼령과 관련지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 즉, 악마는 이방인들('Gentiles')에게 선한 영으로 믿을 수 있도록 나타나 그들의 친구의 죽음을 미리 경고하거나 타계한 사람의 뜻 혹은 그가 어떻게 살해되었는지를 폭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므로 쉽사리 이 악마에게 속는다는 것이다. 이 악마는 무식한 일부 기독교도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죽은 자의 영이 그의 친구에게 돌아올 수는 없으며, 어떤 천사도 그런 모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속이지는 못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악마는 우울증환자들에게는 자신을 늑대, 말 등 동물로 보이게도 한다는 것이다(pp. 57~61).

다음으로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영들과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영들은 욕심을 부리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당사자나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리는 별로 설명되었다. James 왕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은 신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genius bonus*'와 '*genius malus*'에서 온 것이며, 이들은 실제로는 인간을 유혹하려는 악마들이며 모든 선의 원천인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선한 행동으로 인도함을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온 이래로 모든 천사들과 선한 영들의 출현은 중단되었으며, 예수만이 선한 영이요 천사라는 기독교적인, 적어도 제임스

왕 자신이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해석을 했다(2장, pp. 62~6). 그는 악마가 노리는 것이 다음 둘 중의 하나라고 했다. 즉, 하나는 사람들을 위험한 장소로 유인함으로써 혹은 피롭게 건강을 허약하게 만들어 불치의 병에 빠뜨림으로써 그들이 목숨을 잃도록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신을 불신하고 신성모독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잃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The one is the tinsell[loss] of their life, by inducing them to such perrilous places ... by tormenting them to weaken their bodie, and caste them in incurable diseases. The other thinge...is the tinsell of their soule, by intising them to mistruste/and blaspheme God', pp. 63~4). 이것은 그대로 Horatio가 표시한 Hamlet 왕자가 혼령을 따라감으로써 생길 우려(1.4. 69~78)와 일치하는 내용이어서 주목할만하다. 3서 3장에서 그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속이는 악마들로서 *Incubi*와 *Succubi*를 소개한다(p. 67). 악마들은 무지와 무교육('barbaritie')의 사람들을 가장 심하게 공격한다는 것이다(p. 69).

마지막 네 번째 종류의 영들인 이방인들이 'Diana'로 부르는 'Phairie'는 일종의 환상(illusion)으로 소개되고 있다. 여기서 James 왕은 Shakespeare의 *MND*에 나오는 요정들의 왕과 왕비인 Oberon과 Titania 및 그들의 궁정과도 통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To speak of the many vaine trattles founded vpon that illusion: How there was a King and Queene of *Phairie*, of such a iolly court & train as they had, how they had a teynd, & dutie, as it were, of all goods: how they naturallie rode and went, eate and drank, and did all other actiones like naturall men and women: I thinke it liker *VIRGILS Campi Elysij* ...', Chap. V, pp. 73~4). 그는 악마가 순진한 사람들의 감각을 현혹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들은 것처럼 믿게 만든다고 악마를 경계했다.

James 왕은 이런 종류의 영들은 마녀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진한 사람에게도 나타나 그를 무섭게 하는 모양을 지니기도 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가장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들의 예언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혼란시키어 하나님을 가장한 환영의 형태로 예언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Satan*, *Beelzebub*, *Lucifer* 등의 악마들을 성경의 말씀을 곁들여 소개한다. 곧, 예수는 *Beelzebub*을 모든 악마의 왕자로, 요한은 사탄을 모든 악한 천사들의 왕자로 규정했다는 것이다(pp. 75~6).

### III.

이상에서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초자연적 요소들의 source-books에 들어 있는 (혼령에 관한 믿음들과 학설들을 알아보았다. 셰익스피어 시대에 혼령에 관한 생각들을 정리한다면, 첫째 종교개혁 이전부터 오랫동안 존재해 온 민간 믿음들과 여기에 영합한 케토릭교의 연옥설이다. 지옥과 천당의 중간에 위치한 연옥에서 혼령이 육신의 모습과 하고 지상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통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다

칠 재앙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그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어떻게 살해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고 지상을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둘째, 연옥을 인정하지 않는 개신교도들의 생각 - James 왕에 의해서 대변되는 것인데 - 은 죽은 사람이 천당이나 지옥으로 직행했기 때문에 지상으로 다시 귀환한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물론 이들은 혼령들의 존재를, 성경도 부인하지 않으므로,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이들을 모두 악마로 단정했다. 이 유령들의 성격과 근원에 대해서는 목사들을 비롯한 신학자들과 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분분했음을 위에서 보았다. 셋째, Scot가 대변하는 철학자들의 생각이다. 혼령들이 유형의 모습을 취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극히 회의적인 태도를 이들은 보인다. 악마들이 죽은 사람의 육신을 지닐 수 있다는 생각은 연옥에서 혼령이 귀환한다는 설 못지 않게 나태하고 신성모독적인 생각으로 일축한다. 혼령들은 우울증이 만들어 낸 환상(illusion)이거나 어떤 못된 자의 못된 짓이란 것이다. 이와 같은 Scot의 생각은 당시 그리 인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설을 떠나서 민간 믿음이나 문학작품에 나타난 악마들에 대한 개념을 잠시 본다. 악마는 천사의 반대개념이다. 천사는 보통 천사와 대천사(archangels), 혹은 cherub, seraph 등과 같이 등급이 있듯이 악마도 급을 갖고 있었다. 원래는 천사였던 Lucifer는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배반한 대가로 지옥에 떨어진 'fallen angel'이 된 이후에는 Satan으로 불리웠다. Satan은 악마의 두목이고, 인류를 유혹한 자이며, 하나님의 원수이다. 그리고 대문자로 'the Devil'이라고 하면 Satan의 동의어가 되고, 소문자 devil(s)이면 Satan의 추종자의 하나인 악마/악귀의 의미가 되며, 이 때는 demon(s)의 동의어가 되는 것이다. Jonson과 Webster는 각각 극작품인 *The Devil is an Ass*와 *The White Devil*을 썼다. Marlowe의 *Dr Faustus*에서 Lucifer가 한 번은 네 악마를 거느리고 등장한다. 그중의 하나인 Mephistophilis 역시 Lucifer의 추종자로서 그의 대변자 역을 한다. Faustus는 Mephistophilis에게 속아 영혼을 Lucifer에게 판다. 따라서 그는 악마가 좌지우지하는 바가 된다. 이것은 우리말의 귀신들린 것(possessed by the devil/devil-possessed)에 해당하는 것이다. 귀신들린 사람은 호되게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The Errors*에서 Shakespeare는 귀신들린 자들을 묶어서 캄캄한 방속에 가두어 놓아야 한다고 했다('both man and master is possess'd;/I know it by their pale and deadly looks./They must be bound and laid in some dark room', 4.4. 92-4). 요컨대, Lucifer는 하나님을 거역한 악마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가능한 한 많이 빼앗아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악마(the Devil/Satan)는 가끔 Beelzebub란 이름으로도 통한다. Lucifer, Beelzebub, Demogorgon은 흔히 지옥의 삼위일체(infernal trinity)로 불리기도 한다. Lucifer는 Dante가 *The Divine Comedy*의 'Inferno'(canto, xxxiv)에서, Satan은 Milton이 *Paradise Lost*(BK I, 192~220)에서 각각 묘사한 바 있다. 악마는 자신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주로 짐승의 몸을 갖는다는 믿음에서 산양과 결부되어 그리스 신화의 satyre, faun 등과 연결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의 발은 'cloven-footed'인 것으로 믿었다. 셰익스피어도 악마들은 귀족, 법률가, 철학자, 기사로도 나타내며(*Timon*, 2.2. 108~15), 사탄을 암흑의 왕자('prince of darkness')로 묘사하고, 또 Modo/Mahu란 이름으로도 불린다면서 신사라 했고(*Lear*, 3.4. 143~44), 째꼬리 소리를 낸다(*Lear*, 3.6. 29~30)고도 했다. 한편 Marlowe의 *Dr Faustus*에는 Lucifer가 털보남자의 모습을 하고 갈색의 다람쥐처럼 꼬리가 등위로 굽으려진 채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묘사가 있다.

악마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던가. 셰익스피어는 여기 저기에서 암시적으로 이를 언급했다. *IH6*의 Joan of Arc는 마술을 걸어서 악마들의 힘을 정할 때 그들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피, 사지, 몸 전체, 영혼까지도 바치겠다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이밖에 악마의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그는 잘라낸 손톱, 나무뿌리, 머리칼, 핏방울, 편, 호두, 벚씨, 목거리 등을 제시했다(*The Errors*, 4.3. 71~4).

물론 가장 좋은 악마 퇴치법은 당시 기도로 되어 있었다. James 왕도 그의 「마술론」에서 이를 제시했다('ardent prayer to God', p. 42). 셰익스피어도 이 희극 「실수연발」에서 최선의 악마 퇴치법이 굳건한 심신, 특히 신앙심임을 시사하고 있다: 'if my breast had not been made of faith, and my heart of steel,/She had transform'd me to a curtal dog, and made me turn i' th' wheel'(3.2. 145~46). 그러나 일단 귀신에 홀리거나 귀신들린 상황에서는 귀신 쫓는 사람(exorcist)만이 그 악귀는 쫓아낼 수 있었다. 이에 관한 재미있는 장면을 역시 이 셰익스피어 극은 보여준다. 학교 훈장인 Pinch는 Antipholus of Ephesus를 장악하고 있는 악마를 그의 부인과 기타 주변 사람들의 부탁에 응하여 추방하는 일을 한다. Pinch는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진맥하면서 그의 몸속에 들어 있는 사탄에게 성스러운 자신의 기도를 듣고 그 사람을 내놓고, 그의 본래의 어둠의 거처로 곧장 신속히 사라질 것을 하늘의 모든 성자들의 이름으로 명한다(4.4. 54~7).

그러면 악마와 관련된 전설적 믿음들을 몇 개 더 본다. 첫째, 악마는 'cloven feet'를 갖고 있다는 믿음이다. Othello가 Iago란 악마에게 속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말 'I look down towards his feet; but that's a fable'(5.2. 286)은 Othello가 악마는 'cloven feet'를 갖고 있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거나 듣고 있었음을 함축하고 있으며, 그러나 실제로 악마(Iago)의 발을 보니까 그 믿음은 전설에 불과한 것임을 알겠다는 것이 이 대사의 뜻이다. Jonson의 *The Devil is an Ass*에서 Fitzdottrell이 지옥인물에 관한 Pug의 진술을 의심하여 이렇게 말한다: 'I looked on your feet afore; you cannot cozen me; your shoes are not cloven, Sir, you are whole hoof'd'. 이에 Pug는 그것은 잘못 알려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that's a popular error deceives many')고 말한다. 이것 역시 악마의 발가락들은 붙어있다('cloven-feet')는 민간 믿음이 당시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악마는 어떤 동물의 형태이든 어떤 요정이나 사람의 모습이든 원하는 형상을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 바꾸어 지닐 수 있었다는 믿음이 존재했다. 그것의 형상은 피투성

이의 어린애도 되고, 최근에 사망한 친구 등 기상천외의 형태(unlikely shapes)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믿음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 Ferdinand의 말 'Hell is empty, and all the devils are here!'로서 이는 지옥에 있는 모든 악마들의 모습도 악마는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잘 말해준다. 여기에서 Shakespeare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악마가 가장하는 가장 흔한 것의 하나가 방문대상자의 죽은 친구의 모습이란 사실이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람들이 타계한 자들의 혼령이 지상의 친구들이나 아직 생존한 가족을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인들은 이러한 혼령의 방문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이는 어디까지나 순진한 사람들을 현혹해서 해치려는 악마의 소행으로 돌렸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도 악마와 마술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성경속에서 그들은 악령들과 마귀들린 사람들의 존재를 믿게 하는 권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악마들의 언어능력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 이 믿음을 Jonson은 위에 인용한 극에서 활용하였다. 즉, 마지막 막에서 Fitzdottrell이 미친 척하고 Aristophanes를 인용하고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를 말할 때 신중한 Sir Paul Eithersides는 여러 나라의 말을 하는 악마로군('It is the devil by his several languages') 하고 말한다.

T. A. Spalding은 악마를 달 근처 지역을 나돌아다니는 불의 악마들('devils of the fire'), 지구주변을 날아 다니는 공기의 악마들(devils of the air), 요정들과 연결된 흙의 악마들(devils of the earth), 물의 악마들(devils of the water) 및 지하의 악마들(submundane devils)로 나누고 인간을 해치는 이들의 힘과 욕망은 이들의 위치가 지구와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그 근접성에 비례한다고 했다. 그는 Ashtaroth, Bael, Belial, Zephar, Cerberus, Phoenix, Balam, Haagenti, Leraie, Marchosis, Gusoin, Glasya Labolas 등과 같은 악마들의 이름을 나열했다. 또 그는 각 악마 두목들은 휘하에 20, 30, 40 연대(1 legion은 666 악마들로 구성)를 거느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셰익스피어가 20개 악마를 언급했는데 두목 급에 속한 악마는 Hecate(Diana의 이명), Amimon, Barbazon, Zimmar 등 넷 뿐이라는 통계를 발표했다.<sup>9)</sup> Hecate는 Shakespeare의 *Macbeth*, Middleton의 *The Witch*, Jonson의 *Sad Sherpherd*에 등장한다. Jonson은 Hecate를 'mistress of witches', 'our dame Hecate'로 칭했다. Scot는 Balam이 황소, 인간 및 양의 세 머리를 하고 있으며, 뱀의 꼬리와 불타는 눈을 갖고 있고, 무서운 꿈을 타고 다니며, 맹금류 주먹에 갖고 있다는 것으로 기술했다. 또 그는 *Incubus*와 *Succubus*를 악령들로 언급했다. Shakespeare는 *Macbeth*의 마녀들이 거느린 정령들(familiar spirits)로 Paddock, Graymalkin(brinded cat), Harpier를 언급했다. *Lear*의 Edgar는 Flibbertigibbet(Fliberdigibet), Hoberdidance(Hopdance/Hobbididance), Frateretto(morris-dancers), Obidicut (Haberdicut), Smolkin, Modo(Modu), Mahu(Maho)와 같은 악령을 언급했다.

9) Thomas Alfred Spalding, *Elizabethan Demonology* (London: Chatto and Windus, 1880), pp. 35~7.

## IV.

Shakespeare가 그의 극작품들에서 이용한 주된 초자연적 요소로 지금까지 알아본 선악의 영(spirits good and bad) 혹은 혼령(ghosts/apparitions) 이외에 요정들과 마녀들이 있다. 셰익스피어 시대에 있었던 이들과 관련된 민간믿음을 차례로 알아본다.

요정(fairies)은 전설에 나오는 마력, 곧 초자연적 능력을 지닌 인간을 닮은 몸집이 매우 작은 상상의 동물이란 것이 대체적인 사전적 정의이다. 그러나 전설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존재를 인정했다. 즉, 대고적에 난쟁이 족속이 영국의 서부에서 석기를 사용하며 살고 있었는데 청동기를 사용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거나 쫓겨났으며, 생존자들은 외진 들판, 동굴, 숲속, 호수와 옛터 등에서 살았으며, 부끄러움을 잘 타고 포착하기 어려우나 간혹 이웃과 접촉할 때도 있었다는 것이다. 'sylvan deities', 'dwarfs', 'brownies', 'pixies', 'elves', 'gnomes', 'nymphs', 'urchins', 'ouphes' 등의 통칭이 바로 'fairies(요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호수와 시냇물, 나무와 입석 등 켈트족의 범신들(Celtic gods)도 다 요정이란 개념속에 통합되었다. *MWW*에서 Mrs Page는 Falstaff를 고통스럽게 해주기 위한 작전으로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녹색과 흰색의 요정들('urchins, ouphes, and fairies, green and white')의 옷을 입히겠다고 말한다(4막 4장 48~50). 요정들은 보통 녹색 조끼를 입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흑색, 회색, 히스 갈색('heath brown'/'lichin-dyed') 옷을 입는다. 'ouphe'는 일종의 꼬마 요정 elf/elfin의 뜻이며, Anglo-Saxon 이 'alf'에서 온 것이다.

외소함('shape no bigger than an agot-stone', 'little atomi', 'creep into acorn cups, and hide them there' 등 셰익스피어의 표현처럼) 외에도 요정들의 특징은 많다. 요정들의 속성으로서 우선 그들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의 신속한 이동능력과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종종 나약하지만 날개 달린 공기처럼 형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속도 때문에 그들의 세계에서는 인간 세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요정들의 속성은 Shakespeare의 Puck과 공기 그 자체로 묘사되기도 한 Ariel에 의해서 잘 대변되었다. 그 다음 속성으로서는 마술적神通력이다. 중세인들이 마법사(wizard)가 이들의 마술, 마법, 요술(witchcraft, magic, necromancy)을 이용했다고 믿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요정들의 속성으로서 특히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애기들, 특히 금발머리와 푸른 눈의 애기들을 자신들의 애기와 바꿔치기 해가는 습성이다. 이들이 대신 남겨놓은 애기는 'changeling'으로 불린다. Shakespeare는 *Romeo*의 Mercutio를 통해서 Queen Mab(slut의 뜻)이 요정들의 산파('She is the fairies' midwife', 1.4. 54)라고 말했다. 그녀가 'midwife'로 불리는 것은, Halliwell-Phillipps에 의하면, 그녀가 밤에 갓난 애기들을 훔치고 그 자리에 다른 애들을 가져다 놓는 습성 때문이었다.<sup>10)</sup> T. Middleton과 W. Rowley가 17세기 초에 *The Changeling*이란 극작품을 합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추하고 허약하며, 옮기만 하는 애기는 당시 요정

들이 대신 남기고 간 'changeling'으로 간주될만큼 요정들은 아름다운 인간의 애기들을 좋아하여 병약한 자신들의 것들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기가 출생하면 산파가 요람의 덮개 위에 칼을 날이 위로 향하도록 걸어 놓아 요정들의 접근을 막았다는 전설을 시인 Robert Herrick이 그의 *Hesperides*에서 묘사하기도 했다('Let the superstitious wife/Near the child's heart lay a knife;/Point be up and haft be down,/While she gossips in the town;/This 'mongst other mystic charms,/Keeps the sleeping child from harms'). Scottish Highlands에서는 요정들의 애기바꿔치기를 예방하기 위한 의식까지 생겨났었다고 한다. 즉, 할머니가 애기를 빵과 치즈가 든 바구니 속에 담아서 난로 주변을 세 번 돈 다음에 그 빵과 치즈를 가족들이 먹는 의식이었다. 이 예방법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Quarter-day(4반기 지불일)에 무덤을 들판에 파서 문제의 'changeling'을 밤새 눕혀놓으면 요정들이 훔친 애기를 갖고 와서 원상복귀시켰다는 것이다.

요정들의 또 다른 속성 혹은 관행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혼란 일은 아니지만 인간들과의 결혼이다. 중세 때 Shropshire에서는 유명한 Wild Edric이 요정신부를 맞이하여 Alnod란 아들까지 낳았다는 전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혼이 생산하는 애기는 난쟁이가 아니라 보통 키였다고 한다.

요정들은 변덕쟁이들이고, 인간들에게 심술궂은 장난이나 짓들을 한다는 민간 믿음이 있었다. Shakespeare는 이러한 믿음을 그의 극들에서 활용하였다. *MND*에서는 요정들이 젊은 남녀 연인들을 마술을 이용하여 정신을 혼란시키고 애정의 상대자를 혼동하게 만드는 짓을 한다. 또 *MWW*는 요정들이 사람들, 특히 처녀들을 밤중에 꼬집는 일(pinching)을 하는 습성의 일단을 표출하였다. Quickly는 요정으로 위장한 일단의 여인네들에게 Falstaff의 다리를 걸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또 촛불에 지지기도 하라고 부추긴다('About him, fairies, sing a scornful rhyme,/And as you trip, still pinch him to your time', 5.5. 91~2). 이어서 그들은 'Pinch him, fairies, mutually!/Pinch him for his villainy!/Pinch him, and burn him, and turn him about,/Till candles, and starlighgt, and moonshine be out'(5.5. 99~102)로 끝나는 노래도 부른다.

Scot은 *The Discoverie of Witchcraft*에서 Robin Goodfellow와 Hob Goblin을 언급했다(BKVII, Chap 2). 이들은 마녀들만큼이나 사람들에게 무섭고 또 믿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차 마녀는 이 Robin Goodfellow의 '환상과 못된 짓(illusion and knauerie)'에 의해 비난도 받고 인식도 될 것이라면서 걸어 다니는 혼령들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들은 마녀들만큼이나 많은 믿을만한 이야기를 지닌 이 자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고 그는 말했다. 문제는 성경 번역자들이 마녀란 이름으로 'diuinors, soothsaiers, poisoners, and couseners'를 불렀듯이 모든 유령들을 Robin Goodfellow의 이름으로 부르기는 언짢다는 데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장인 BK XVI, Chap. 7에서 몇몇 바보들을 제외하고 모든 켈트 지방인들은 'Robin goodfellowe'가 '망나니

10) The Revd T. F. Thiselton Dyer, *Folk Lore of Shakespeare* (London: Griffith & Farran, West Corner St Paul's Churchyard, 1883), p. 23.

(knaue)'임을 알고 있다고 했다.<sup>11)</sup>

Shakespeare가 *MND*에서 Puck과 Robin Goodfellow를 혼용하고 있어서 편집자들은 등장인물란에서 'Puck, or Robin Goodfellow'로 적어 Robin Goodfellow를 Puck의 또 다른 이름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셰익스피어는 2막 1장에서 한 요정이 Puck과의 대화에서 그에게 'you are that shrewd and knavish sprite/Call'd Robin Goodfellow'(33~4)라 말함으로써 Puck과 Robin Goodfellow가 이 명동인임을 명백히 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사는 이 요정이 Puck에게 'Those that Hobgoblin call you, and sweet Puck,/.../Are not you he?'(40~2)라고 말함으로써 Puck가 가끔 Hobgoblin으로도 불리움을 역시 명백히 했다. Dyer는 Puck가 원래 악마 'devil'을 뜻하는 'puck or pouke'이므로 fairies의 종 전체에 해당하는 개념이지 어떤 개별적인 'sprite'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Vision of Piers Plowman*에서도 요정들 전체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였다고 했다. 그리고 Robin Goodfellow가 Puck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과 *MND*의 Puck에 대한 가장 값진 설명의 하나가 1628년 런던에서 나온 소책자(a black-letter tract)이다. 이것의 표지는 "Robin Goodfellow: His Mad Pranks, and Merry Jest(s) full of honest mirth, and is a fit medicine for melancholy"로 되어 있음을 그는 지적했다. 이어 Dyer는 16세기 말엽과 17세기 초의 작가들의 풀이도 소개하고 있다. 즉, Drayton은 *Nymphida*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Puck을 Hob-goblin으로 부르고 있으며, Burton은 *Anatomy of Melancholy*에서 그를 '그들중에는 보다 큰 부류가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개구장이 도깨비와 로빈 굿펠로우로 부른다(A bigger kinde there is of them, called with us hobgoblins and Robin Goodfellows)'로 설명했다. 이상이 기록들이 함축적으로 말해 주는 것은 Puck, Hobgoblin, Robin Goodfellow가 다 이명동인이란 것이다. Jonson의 *Masque of Love Restored*에서도 Puck는 Robin Goodfellow란 이름하에 특징적으로 잘 묘사되었다.<sup>12)</sup> Shakespeare는 Puck을 'Lob'('Thou lob of spirits'), 'Will-o'-the-Wisp', 'a fire'로도 불렀다.

이 외에도 요정들은 인간들과는 달리 영원불멸성을 갖고 있었으며, 그들이 원하는 모양을 자유자재로 취할 수 있었다. 요정들은 달밤에 원을 그리면서 가무를 무절제한 정도로 즐겼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sluts) 등과 그들의 처신을 싫어했다. 대신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은 좋아하여 Windsor Castle을 드나드는 요정들은 모든 거룩한 방에 행운을 뿌려놓으라('About, about;/Search Windsor Castle, elves, within and out;/Strew good luck, ouphes, on every sacred room', *MWW*, 5.5. 55~7)는 명도 받는다. 그들은 좋아하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줄 정도로 관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의 관대함을 누설하면 운이 나빠지기도 한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해로운(malignant) 일도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믿었다. 앞서 우리는 요정들이 인간의 얘기를 자신들의 것과 바꿔치기 하는 악습을 언급했고, 또 Puck가 'shrewd and

11) Scot, pp. 131 and 483.

12) 동, pp. 6-7.

knavish sprite'로서 때로는 동네 처녀들을 놀라게 만드는 'mischievous' 한 데가 있음을 보았지만, Imogen, Marcellus 등도 이들의 'malignity'를 경계했다. Imogen은 밤중 촛불밑에서 세 시간이나 독서를 한 후 피곤한 나머지 하녀를 내보내고 취침하면서 신에게 요정들과 밤의 유혹자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한다: 'From fairies and the tempters of the night/Guard me' (2.2. 9~10). Marcellus는 성탄일이 가까워 오면 새벽의 새[수탉]도 밤새 울어 어떤 영도 감히 나들지 못할 정도로 밤들이 거룩하여 별들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요정 또한 그것의 마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했다('then no planets strike,/No fairy takes, nor witch hath power to charm', 1.2. 162~3).

요정에게 말을 거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Falstaff는 말한다('They are fairies, he that speaks to them shall die', *MWW*, 5.5. 47).

## V.

이번에는 마녀들(witches)에 대해서 알아본다. 마녀는 한 마디로 마술(witchcraft/sorcery)을 거는 여인이다. 마녀는 마술을 걸 때 주문(spell, charm, incantation)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마녀는 백 마녀(white witch)와 흑 마녀(black witch)로 나뉜다. 전자는 백 마술을 사용하는 백 마술사(white magician)요, 후자는 흑 마술을 사용하는 흑 마술사(black magician)이다.

백 마녀는 대체적으로 마귀를 쫓는다는든가 병자를 약초나 주문 등으로 낫게 하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백 마술(white magic)을 사용하고, 흑 마녀(hag/crone)는 사람을 해치는 흑 마술(black magic)을 사용한다. 흑 마술에는 악령, 악귀(evil spirit)가 동원되는 것이 보통이다. 마녀가 애용하는 악귀는 그녀의 'familiar spirit'로 불리운다. 흑 마술을 행하는 흑 마녀는 그들이 사회에 끼치는 해독으로 인해서 수난을 받았다. 자연 이들을 색출하여 처형하는 데 있어서 극도의 잔인성과 무차별성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마녀사냥과 처형이 큰 역사적인 물의를 빚었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특히 마녀와 마술의 존재를 굳게 믿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James I세 때 마녀박해가 극에 이른 감이 있다. England에서는 천여 명이 마녀의 혐의를 받고 처형되었으며, Scotland에서는 4,400여 명이 화형을 당했다. 유럽 대륙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국이 프랑스와의 백년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프랑스의 성처녀 Joan of Arch(1412~31)를 마녀로 신고하여 화형언도를 내린 것은 Shakespeare도 *1H6*에서 다루었다. Elizabeth 여왕과 여왕모가 마녀와 마술에 희생되었다고 믿은 James I세가 사회와 국가에 끼치는 마녀의 해독에 매우 과민하게 반응함으로써 그는 무차별적인 마녀색출로 무리를 빚은 군주의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무고한 여인들이 아무런 죄 없이 마녀란 혐의로 억울하게 처형된 경우가 기실 비일비재했다. 가난한 노파가 어느 농가에 구걸 가서 냉대받은 관계로 간혹 중얼거리기

라도 하면, 그리고 그후 그 농가의 가족이나 가족에 좋지 않은 일이라도 발생하면 그것은 곧 그 노파의 주문과 마술에 의한 것으로 단정되어 영락없이 마녀로 고발당하는 형국이였다. 케토릭교와 개신교의 갈등이 이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전자는 악귀를 쫓아내는 것(exorcism)이 어느 정도 적법적으로 되어 있는 점을 후자(Protestantism/Puritanism)는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비난하고 마술에 대한 미신적인 신봉을 더욱더 무자비하게 규탄하고 배척했던 것이다. 개신교의 공격은 케토릭도 종교재판을 열어 마술을 이단으로 판결하여 마녀를 처벌하게 만들었다. 마녀에 대한 처벌이 화형과 교수형이었음은 Shakespeare의 *1H6*('that sorceress condemn'd to burn', 5.4. 1; 'O, burn her, burn her! hanging is too good', 5.4. 33)과 *MWW*('Hang her, witch!', 4.2. 191)도 각각 증거하고 있다.

Joan of Arc는 형체가 없는 초자연적인 종류의 마녀가 아닌 인간마녀였다. 영국군은 그녀를 마녀, 주술가의 뜻인 'Pucelle'로 규탄하며, 그녀 자신도 주문을 사용하여 악귀를 불러냄으로써 인간 마녀임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주문에 응하여 악귀들('fiends')이 등장하자 그녀는 그들에게 신속히 나타나준 데 고마움을 표시하고 한 번만 더 프랑스가 승전하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한다(5.3. 2~12). 악귀들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그녀는 과거에 자신의 피로써 그들을 먹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의 청을 들어주면 사지를 절단하여 선금조로 주겠으며, 후에는 몸과 영혼('my body, soul, and all') 모두를 바치겠다고 말한다(5.3. 14~23). 이것은 다 인간 마녀의 속성인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극에서 이용된 마녀중에는 Joan of Arc와 같은 인간 마녀가 아닌, 요정들처럼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없는 초자연적 마녀들이 있다. *Macbeth*의 마녀들이 바로 그 예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마녀사냥이란 엄청난 폐단을 시정하고자 나선 사람이 바로 Reginald Scot였다. 그는 마녀와 마술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마녀와 마술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차별적 마녀사냥과 옥석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처형이 더 큰 사회적, 국가적 물의를 빚는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도로서 그는 사람들, 특히 많은 중후한 현인들('graue and wise men')이 지고하신 하나님과 독신자 예수의 전능에 의한 폭풍우를 포함한 천지의 각종 변화와 개인이 받는 처벌과 행불행 등 만사를 하찮은 노파의 꼬덕임이나 소원의 결과로 믿는 우매함과 미신에 경악했던 것이다('I mislike the extreme cruelty vsed against some of these silly souls'). 따라서 Scot의 저서의 취지는 마녀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마녀들을 숭배하는 비기독교적인 작태를 증오했던 것이다('Truly I deny not that there are witches ... but I detest the idolatrous opinions conceiued of them'). 그의 이런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James I세는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마녀들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의 정책에 대한 반항으로 오해함으로써 영국왕이 되기 이전의 Scotland의 James VI세 시절부터 Scot를 미워하고, *Daemonologie*를 친히 저술하여 서문에서 명시적으로 그를 감정적인 언사로 책하고 반박했으며, 1603년에 영국의 왕위에 오르자 첫 번째로 한 일 중의 하나가 불행하게도 그의 저서를 분서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마녀와 마술에 대한 Scot의 견해를 알아본다. Scot는 그의 *The Discoverie of Witchcraft*(1584)를 마술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확고하고 깊게 뿌리박고 있으므로 거의 누구도 하나님에 손 쓸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로 시작하고 있다. 역경, 슬픔, 병, 애기 사망, 곡식과 가축의 손실이 마녀들의 탓으로 돌려져서 그들이 처벌받고 있다는 것이다. 환란이 있을 때 마녀들의 위안과 처방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호소하라는 성경의 뜻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심이 없는 자들은 우박, 눈, 천둥, 번개, 비, 폭풍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녀들과 주술사들의 'cunning and power'에 의한 것으로 잘못 믿는다는 것이다. 그는 지옥의 악마들과 영국의 마녀들이 모두 죽거나 화형 혹은 교수형을 당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비, 우박, 폭풍우를 지금처럼 갖게 될 것을 장담한다고 말한다. 그는 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을 잠재우는 것은 하나님이며, 바람은 주님의 바람이지 마녀의 바람이 아님을 거듭 강조한다(BK I, Chap 1). 1서 2장도 유사한 내용의 계속이다. 사람들이 위안과 충고('comfort and counsell')를 구할 때 하나님 아닌 악마에게 가고, 의사가 아닌 속이는 마녀('cousening witch')에게 가며, 절름발이와 맹인을 낫게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의 일인데도 마녀의 도움을 구하는 병폐를 지적하면서 그는 요한 복음이 분명히 'the diuell cannot open the eies of the blind'(10.21)로 적혀 있음을 주지시킨다.

1서 3장에서 Scot는 마녀와 마술사를 기술하고 있다: 'They are leane and deformed, shewing melancholie in their faces, to the horror of all that see them. They are doting, scolds, mad, diuelish; and not much differing from them that are thought to be possessed with spirits; so firme and stedfast in their opinions, as whosoever shall onelie haue respect to the constancie of their words uttered, would easilie belecue they were true indeed'(p. 7). 요컨대, 마녀들은 마르고 불구자로서 얼굴에는 우울증을 들어내고 있어서 쳐다보는 사람들 모두의 공포감을 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귀신들린 사람들과 차이가 없으며, 매우 요지부동의 확고한 의견들을 갖고 있어서 일관성있는 것을 존경하는 자들은 그것들이 진실된 것인 줄로 쉽사리 믿게 된다는 것이다. Harsnet도 그의 *Declaration*(p. 136)에서 이와 유사한 묘사를 했다: '풍상을 겪은 노파로서 나이 때문에 턱과 무릎이 맞닿아 있고, 죽장에 의존하며 활처럼 몸을 구부리고 걷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고, 치아는 빠져있으며, 이마에는 깊은 줄음이 나 있고, 입술은 마비되어 떨고 있으며, 중얼거리며 길거리를 걷는다. 하나님을 잊고 있으나 매춘부를 매춘부라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날카로운 혀를 지니고 있는 자이다(an old weather-beaten crone, having her chins and knees meeting for age, walking like a bow, leaning on a staff, hollow-eyed, untoothed, furrowed, having her lips trembling with palsy, going mumbling in the streets; one that hath forgotten her Pater-noster, yet hath a shrewd tongue to call a drab a drab)'.

마르고, 모양이 흉하고, 얼굴이 조글조글하며,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는 시들은 노파



이외의 마녀의 특징은 수염이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Shakespeare가 제공한다. *MWW*에서 Evans는 노파로 변장했다가 Ford에게 야단과 매를 맞으면서 도망쳐 버린 Falstaff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By yea and no, I think the oman is a witch indeed. I like not when a oman has a great peard. I spy a great peard under his muffler'(4.2. 191~4). 왜냐하면 여기서 Evans는 턱 수염을 노파로 분장한 Falstaff가 마녀임을 가리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Honest Man's Future*란 옛 극에는 턱 수염이 마녀의 표식이란 명시적인 표현이 나온다('The woman that came to us for disguises must wear beards, and that's to say a token of a witch', 2막 1장). Dekker의 *Honest Whore*에서는 일부 여인네가 턱 수염을 갖고 있다면서 그들을 반 마녀라고 했다('Some women have beards; mary, they are half witches', 4막 2장).

Scot로 다시 돌아오면, 그는 1서 4장에서 민간 미신에 의하면 세 종류의 마녀가 있다면서 이들을 소개한다. 첫 번째 종류는 사람을 해칠 수 있으나 도울 수 없는 것, 둘째 종류는 사람을 도울 수는 있어도 해칠 수 없는 것, 세 번째 종류는 도울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는 것이다. 피해를 주는 마녀들 중에는 늑대를 제외한 짐승들보다 더 짐승다운 종이 있는데 이들은 보통 어린 아이들과 자신들의 아기들을 삼키거나 먹는 다면서 그는 바로 이런 마녀들이 우박과 폭풍, 번개와 천둥 같은 악천후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한다. 또 이들은 사람들과 짐승의 불임을 가져오고, 어미와 함께 걸어가는 어린애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물에 빠뜨리고, 말들로 하여금 밭길질을 하도록 하여 탄 사람을 떨어 뜨리며, 보이지 않게 공중에서 이리 저리 자리를 옮긴다는 것이다. 이들은 판사들의 마음도 변경시켜서 그들에게 유죄선고를 내릴 힘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숨겨진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들도 드러나게 하며,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절제한 사랑이나 증오로 변경시킬 수 있으며, 마음내키는 대로 번개와 천둥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으며, 남자의 용기와 생식능력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유산시킬 수 있으며, 자궁 속의 아이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들은 시선만으로 사람이나 짐승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pp. 9~10). 이에 대한 Scot 자신의 의견이 5장에 나온다. 즉, 이와 같은 마술에 대해서 자신은 감히 그것들이 거짓이며 우화적인('false and fabulous') 것임을 선언하며, 이런 종류의 마녀들은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6장에서 그는 이런 마녀들의 능력이 허구임을 고발한다. 즉, 마녀들의 것으로 돌리는 그런 악행들은 마녀들이 없는 곳에서도 일어나고 마녀풀을 교수형이나 화형에 처할 때도 지속된다면서 이것은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일인데도 그 결과를 원인에 결부시키는 것과 같은 비합리적인 논리임을 그는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

Scot는 마지막 BK XVI, Chap. 2에서 마술의 정체를 폭로했다. 마술은 기실 사람을 속이는 술수로서 하나님을 속이고, 불경하고, 신성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약인의 것으로 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대중의 평가로는 초자연적 역사이며, 육신의 노파와 영적인 악마가 획책하는 것이란 것이다('Witchcraft is in truth a cousening art

... it is a supernatural worke, contriued betweene a corporall old woman, and a spirituall diuell'). 이 마술의 방법은 매우 비밀스럽고, 신비롭고, 피이하여 오늘날에도 이것을 믿을 만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인들, 학식있는 자들 혹은 신자들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나 어린이들, 바보들, 우울증 환자들은 캐톨릭교도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일이라고 개신교도인 그가 캐톨릭교도들을 겨냥하였다('incomprehensible to the wise, learned or faithfull; a probable matter to children, fooles, melancholike persons and papists'). 이 마술의 효과와 결과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나 짐승, 풀, 나무, 곡식 등이 해를 입었을 때는 악한 것이고, 병자가 치유되고, 도둑이 처벌받고, 진실된 자들이 득을 보면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술의 수단과 도구는 'words, charmes, signes, images, characters' 등이 라 했다(p. 472). 그가 BK XVI, Chap. 7에서 내린 마술에 대한 결론은 현자들은 모두 마녀들의 기적적인 일들이란 자연, 개연성 및 이성에 반하므로 진실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All wise men understand that witches miraculous enterprizes, being contrarie to nature, probabilitie and reason, are void of truth or possibilitie')는 것이다. 그는 거듭 로마교인들을 공격한다. 모든 개신교도들은 로마교의 주문들과 주술과 축도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데도 사람들을 맹목 상태로 잡아두고 신부들을 부자되게 하려는 도구요 방책임을 감지하고 있다('All protestants perceiue, that popish charmes, coniurations, execrations, and benedictions are not effectuall, but be toies and deuises onelie to keepe the people blind, and to inrich the cleargie')는 것이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마녀들이 그들의 장담대로 행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창조자의 능력을 한 생물에게 돌리는 것이다('to confesse witches can doo as they saie, were to attribute to a creature the power of the Creator')는 사실이며, 어린이들은 모두 요술쟁이의 기적들이 '요술과 공모 (legierdemaine and confederacie)'로 되어 있음을 배웠다고 그는 개신교도의 입장을 강하게 표했다(p. 483).

James 왕은 마녀들이 그들의 주인인 악마를 섬기는 것을 대 전제로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 마녀들을 논한다. 일례를 들면, 하나님의 법에서는 마술사, 점쟁이, 요술쟁이, 주술사들, 마녀들, 기타 악마와 내통하는 종류의 자들은 무엇이나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경고를 받고 있다는 것이며('wherein[in the Lawe of God] are all *Magicians*, *Diuiners*, *Enchanters*, *Sorcerers*, *Witches*, & whatsoever of that kinde that consultes with the Deuill, plainelie prohibited, and alike threatnd against'), 사도행전, 16: 16에서 사도가 침묵시킨 바 있는 Python이란 영을 가진 여인이 바로 주술사나 마녀라는 것이다(2서 1장). 마녀들이 병을 고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틀림없이 환자의 심신을 완전히 망칠 뿐이며, 오로지 하나님에게 드리는 진지한 기도를 통한 치료만이 적법적인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2서 5장).<sup>13)</sup> 요컨

13) King James, pp. 29 and 48.

대, 그는 마녀와 마술사가 악마나 그를 섬기는 악귀(demons)나 요정을 소환하여 그의 사사로운 목적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았다.

*Daemonologie* 2서 3장에서 그는 마녀들이 복수욕이나 세속적 재산욕에 현혹되어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손상시키는 것을 한다고 말한다('These Witches...being intised either for the desire of reuenge, or of worldly riches, their whole practises are either to hurte men and their gudes').<sup>14)</sup>

16세기의 마술관에 의하면, 마술은 지식을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터득 내지 습득될 수 있었다. 세익스피어는 *Tempest*에서 Prospero의 마술을 통해서, 그리고 Marlowe는 *Dr Faustus*를 통해서 이것을 잘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전자는 요정을 이용한 남을 해치거나 어떤 불법적인 목적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도록 선용된 이른바 백 마술인데 반하여 후자는 사탄을 섬기는 악귀(Mephistophilis)를 이용한 저주받은('damnable') 마술로서 남을 괴롭히고 또 자신에게는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이른바 흑 마술이다.

공국 Milano의 공작 Prospero는 국사보다는 'liberal arts'를 더 선호하여 나라를 동생에게 맡기고 자신의 마음을 향상시키는 일('the bettering of my mind')에 열중한다. 야심만만한 동생이 국권을 탈취하고 형을 노나 닳이 없는 배에 태워 바다 한 가운데로 던져버린다. 그러나 Prospero는 그가 애지중지하던 책들('my library/Was dukedom large enough', 1.2. 109~10)을 노신하 Gonzalo가 내밀하게 배속에 실어 주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마술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그의 마술로 폭풍을 일으켜 원수들을 그의 무인고도에 끌어들이지만 복수 대신 관용과 용서를 배풀어 다시 화평의 시대를 열며, 이렇게 마술을 선용한 후에는 유감없이 마술('potent art')을 버리겠다는 공표하고 마술집행이는 꺾어서 깊은 땅속에 묻고 마술서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빠뜨린다(5.1. 50~7).

신학도인 Faustus는 그의 지식욕과 권력욕을 달성하는 데 신학이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마술사들의 형이상학들과 마술서들('metaphysics of magicians and necromantic books')을 통해 마술의 도구인 '선, 원, 글자들과 기호들(lines, circles, letters, and characters)'을 익힌다. 마술사는 반신반인이란('A sound magician is a demi-god') 신념하에 초자연적 마술을 습득함으로써 신의 권세와 전지전능에 도전한다(Scene I, 48~61). 그는 결국 Lucifer에게 자신의 영혼을 양도하는 대가로 24년간 흑 마술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게 되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위기에 처한다. 그가 Mephistophilis를 매개자로 사탄과 맺은 계약서의 다섯 가지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1) Faustus는 유령('spirit')이 될 수 있다. 2) Mephistophilis는 Faustus의 명을 받드는 하인이 된다. 3) Mephistophilis는 Faustus를 섬기면서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 가져다 준다. 4) Faustus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다. 5) Faustus는 언제나 원하는 모습을 지닐 수 있다.

14) 동, p. 35.

H. Littledale은 마술사 Faustus와 Prospero가 부린 마술과 그 목적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매우 적절하게 구분하였다:

포스터스와 프로스페로는 다 르네상스적인 지식사랑을 갖고 있으나 포스터스는 마술을 그것이 금지된 지식이므로 연구하고, 프로스페로는 그것이 철학적인 연구이므로 연구한다. 포스터스는 그의 욕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판다. 프로스페로의 마술은 '저주받지 않는' 마술이며, 그는 그것을 오로지 자신을 악인들로부터 구하는 데 사용할 뿐이다. 포스터스가 연구하는 마술은 마성의 저주받음 혹은 마술이나 프로스페로의 '술'은 악의적이 아니며, 백 마녀들의 것처럼 '짓궂은 방법으로 선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천문학과 신비한 철학적 연구의 수단으로 얻은 비범한 능력이다. 그것은 계산과 주문, 마술적인 것들, 책, 요술지팡이 및 팡토에 의존하고 있는 외부적인 술이다. 이 물건들 없이는 그는 무력하다. 그의 영혼은 악귀들과는 일체 거래가 없다. 포스터스도 마술지팡이를 갖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주는 띠를 지니고 있으나 그의 정령은 메피스토필리스이다. 프로스페로의 정령은 에어리얼이다. 기실 프로스페로는 정규 마술사라기보다는 연금술적 철학자에 가깝다. 그가 자신의 요술지팡이를 부러뜨리고, 마술서를 물을 때 그는 오로지 지식있는 군주로 남을 뿐이다.

(Faustus and Prospero both have the Renaissance love of learning, but Faustus studies magic because it is forbidden knowledge, Prospero because it is philosophical research. Faustus sells his soul to gratify his sense: Prospero's magic is 'not damnable', and he only uses it to work his deliverance from evil men. The magic that Faustus studies is the black art, diabolic and execrable; Prospero's 'art' is not malignant, not even 'mischievously good', like that of 'white witches'; it is simply the acquisition of extraordinary powers, by means of astronomy and of cabalistic studies. It is an art external to himself, depending on calculations and spells, and on magic paraphernalia, book, wand, and mantle; without these he is powerless. His soul is clear of all dealings with the evil one. Faustus has a magic wand too, and a girdle that confers invisibility, but his familiar is Mephistophilis; Prospero's is Ariel. In fact, Prospero is more of the Hermetic philosopher than the regular magician; when he breaks his wand and buries his book, he is merely the learned prince.)<sup>15)</sup>

마녀들은 미래('the seeds of time')를 내다보는, 말하자면 예언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도 있었다. Shakespeare는 이를 *Macbeth*에서 Banquo의 'If you can look into the seeds of time,/And say which grain will grow, and which will not,/Speak then to me'(1.3. 58~60), 'prophetic greeting'(1.3. 78), 'What, can the devil speak true?' (1.3. 107) 등으로 표현했으나 그 예언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Macbeth*의 'I ... begin/To

15) H. Littledale, 'Folklore and Superstitions: Ghosts and Fairies: Witchcraft and Devils', in *Shakespeare's England: an Account of the Life and Manners of his Age* (2 Vols), ed Sidney Lee et al (Oxford: Clarendon Press, 1916, 1970), i, pp. 541~42.

doubt th' equivocation of the fiend'(5.5. 41~2), 'these juggling fiends'(5.8. 19) 등을 통해서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 밖에도 이 작품은 마녀들의 다른 여러 능력도 언급했다. Scotland(*Macbeth*)의 마녀들은 채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면서 그속에서 음주도하고 춤도 추면서 즐겁게 놀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마녀들은 계란껍질과 조개껍질(egg-shells and cockle shells)을 타고 물위를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Scot는 'witches could sail in an egg shell, a cockle or muscle shell through and under the tempestuous seas'라 했으며, Shakespeare도 *Pericles*의 4막 4장 2행에서 'Sail seas in cockles'라는 대사를 넣었다. 채는 구름의 상징으로서 Aryan 종족의 모든 나라에서 마녀들, 기타 요정들이 육지와 바다로 소풍갈 때 사용된 신화적 수레로서 간주되었다고 한다.

이미 언급한 바이지만 마녀들이 폭풍과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폭풍을 일으켜서 항해중인 선박에 위해를 가하는 능력에 관해서는 Scotland의 James VI세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매우 재미있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In the year 1589, King James VI. brought his bride, Anne of Denmark, home to Scotland. During the voyage an unusually violent storm raged, which scattered the vessels composing the royal escort, and, it would appear, caused the destruction of one of them. By a marvellous chance, the king's ship was driven by a wind which blew directly contrary to that which filled the sails of the other vessels'[Pitcairn, I. ii. 218]. 요컨대, 이 사건은 James 왕으로 하여금 마녀들의 짓으로 믿도록 해서 더욱더 마녀들과 마술의 존재를 확신하게 만들었고, 마술로써 국왕의 목숨을 노린 마녀들을 색출하여 준엄한 심문을 하고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하게 했다는 것이다.<sup>16)</sup> 그후 그의 마녀사냥은 현충 더 가열되었고, 그가 영국의 왕이 된 후에는 이미 언급했듯이 마녀와 마술의 존재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부분별한 마녀사냥을 경계한 Scot를 공개적으로 미워하고, 그의 책을 분서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마녀들의 피를 뽑으면 그들의 마술이 효력을 잃는다는 전설적 믿음을 Shakespeare는 그의 *1H6*에 도입했다. 1막 5장에서 Talbot는 등장하는 Pucelle(Joan of Arc)에게 향하여 'I'll have a bout with thee;/Devil or devils's dam, I'll conjure thee;/Blood will I draw on thee - thou art a witch'(4~6행)라 소리쳤다. J. Paul S. R. Gibson은 이렇게 마녀의 피를 뽑아서 그녀의 마술의 효력이 없어지는지를 살펴 보면 역으로 그녀가 마녀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Shakespeare가 제시한 마녀구분법의 두 가지 중의 하나라면서 또 하나는 *Troilus*의 'Thou stool for a witch!'(2.1. 42)이라고 했다. 마녀 혐의자를 등 엮는 결상에 단단히 매어 혈액순환이 안 될 정도의 상태로 24시간 얹혀놓는다는 것이다. 이 때 그녀는 마녀가 아니면 살아 남고, 마녀일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다.<sup>17)</sup> 그러

16) Spalding, p. 112.

17) J. Paul S. R. Gibson, *Shakespeare's Use of the Supernatural* (Cambridge: Deighton Bell & Co., 1908), p. 25.

나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태에서 죽지 않고 24시간을 견딜 수는 없는 일이고 보면 허위고백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마녀로 몰려서 부당한 죽음을 당한 여인들이 당시 많았을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Cumberland Clark은 또 다른 잔인한 마녀 구분법들을 소개했다. 혐의자의 손발을 한데 묶어서 그녀를 물속에 내 던진 후에 그녀가 뜨면 마녀로 쳤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위로 떠오르든 안 떠오르든 죽는 운명이었다. 또 혼한 테스트의 하나는 날카로운 흉기로 여인의 몸을 여기 저기 찔러 아파하지 않는 곳을 찾았다. 털속에 정령(familiar spirit)을 지니고 다닌다는 믿음 때문에 혐의자의 털도 깎았다는 것이다. 성경으로도 시험하여 주기도문을 외이지 못하는 혐의자는 불에 태웠다고 한다. 이런 시험결과로 수많은 죄없는 여인들이 화형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상을 위해서 열심히 마녀사냥하는 사람도 생겨났으나 성적이 너무 좋다는 이유로 그 자신이 혐의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Matthew Hopkins란 사람이 바로 그런 경우로서 결국 그는 교수형을 당했다는 것이다.<sup>18)</sup>

마녀들은 특정인에게 복수할 때 밀랍(wax)으로 그 사람과 닮은 상을 만들어 그것을 부셔버리는 등으로 공격을 가하면 실제로 그런 효과를 낸다고 믿었다. *MWW*에는 사기환인 마녀가 사용하는, 요즘의 말로 소프트웨어들이 나열되어 있다: 'A witch, a quean, an old cozening quean! Have I not forbid her my house? ... We are simple men, we do not know what's brought to pass under the profession of fortune-telling. She works by charms, by spells, by th' figure, and such daub'ry as this is, beyond our element; we know nothing. Come down, you witch, you hag you, come down, I say!'(4.2. 172~80). 여기에는 마력, 주문, 형상 등 세 가지의 마녀의 방법 혹은 도구, 곧 소프트웨어가 언급되어 있다. 우리의 관심은 형상에 의한('by th' figure') 복수방법에 있다. 이것이 바로 마녀들이 밀랍으로 형상을 만들어 복수하는 방법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이 점을 *KJ*에서도 언급했다. 부상당한 Melune은 자신의 부상이 심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Salisbury에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직유로써 마치 밀랍으로 된 형상이 불에 녹아내리 듯이 출혈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Retaining but a quantity of life,  
Which bleeds away even as a form of wax  
Resolveth from his figure 'gainst the fire? (5.4. 23~5)

*Two Gentlemen*에서도 이런 식의 마술이 언급되었다. 2막 4장에서 Proteus는 독백에서 이렇게 말한다:

... for now my love is thaw'd

18) Cumberland Clark, *Shakespeare and the Supernatural* (London: Williams & Norgate, Ltd, 1931), p. 28.

Which like a waxen image 'gainst a fire  
Bears no impression of the thing it was. (200~2)

M. St. Clare Byrne은 원수를 비밀리에 양갓음하기 위해서 그자의 형상을 밀랍으로 만들어 바늘로 그것의 심장을 관통하듯이 찌르고 불에 녹이면 된다는 셰익스피어 시대의 믿음을 기록했다: 'those who wanted a secret revenge could surely compass an enemy's death if a wax figure were moulded in his likeness, pierced as through the art with a needle, and put to melt by the fire'.<sup>19)</sup> Gibson은 이러한 미신이 성경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을 다음 구절을 인용하면서 시사한 바 있다: 'As wax melteth before the fire, so let the wicked perish at the presence of God' (Psalm, lxxviii.2).<sup>20)</sup> 어쨌든,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을 낳는다(Like produces like)는 말은 인류학의 한 표어로 되어있다시피 할 정도로 인류사회의 어느 곳이나 공통되는 원시믿음의 하나이고, 오늘날에도 이런 믿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녀들이 마술을 걸 때 홀수, 특히 3과 3의 배수인 6, 9 등을 선호했다는 믿음이 있었다. Dyer는 Fairfax의 *Tasso*(BK xiii, stanza 6)에 'Witchcraft loveth numbers odd'로 기록된 것을 언급하면서 그보다도 오래전인 Ovid의 *Metamorphoses*, xiv. 58과 Virgil의 *Eclogues*, viii. 75에서도 언급되어 있음을 지적했다.<sup>21)</sup> 이 믿음을 Shakespeare는 *Macbeth*의 마녀들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냈다. 이들은 심지어 '네 번'을 '세 번과 한 번(thrice and once)'으로 표현할 정도로 홀수를 선호하였다. 3자가 주문에서 애용되는 숫자임을 우리는 *Hamlet*의 극중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Lucianus가 Player King의 귀속에 독약을 넣기 직전에 말하는 주문속에는 'Thou mixture rank, of midnight collected,/With Hecat's ban thrice blasted, thrice [infected]'(3.2. 257~58)라고 3('thrice')이란 숫자를 두 번이나 사용하였다. Shakespeare는 홀수가 주문에서 애용되는 이유를 *MWW*에서 밝히고 있다. Falstaff는 홀수에는 행운이 깃들어 있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This is the third time; I hope good luck lies in odd numbers ... They say there is divinity in odd numbers, either in nativity, chance, or death'(5.1. 2~4).

## VI.

끝으로 혼령, 요정 및 마녀 외에 셰익스피어 시대의 민간미신으로 천체와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 사람의 운수는 그가 태어날 때 하늘에 나타난 별과 직결된다는 믿음

19) M. St. Clare Byrne, *Elizabethan Life in Town and Country* (London: Methuen & Co. Ltd, 1925, 1961), p. 287.

20) Gibson, p. 25.

21) Dyer, p. 40.

에서부터 달이 지구에 가까히 닳아왔을 때 이를 쏘이면(moonstruck) 미친다(lunacy/lunatic)는 미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월식과 일식들(eclipses), 혜성들(comets), 유성(meteors), 지진과 기타 천체의 혼란들은 각종 점성술적 미신들(astrological superstitions)을 낳았다. 천체나 자연계의 이변은 곧 국가의 존망이나 임금의 신변변화 등과 같은 인간세계의 큰 사건을 예고하는 징조로 받아들여지기 일쑤였다. Clark는 혜성들을 왕들의 죽음을 예고하는 별로, 유성들과 별뚝 별(shooting-stars)을 악을 전하는 메신지로, 일식과 월식을 경외감을 불러 일으켜서 사악한 자들을 회개시키고, 쾌락 생활을 경계시키는 것으로 연계하여 천체와 관련된 미신을 설명했다.<sup>22)</sup>

이런 미신들은 당시의 문학작품에서 다수 발견된다. Shakespeare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Horatio는 'the mightiest Julius'가 쓰러지기 직전에 시체들이 무덤을 열고 나와 로마의 거리를 소란을 피우며 돌아다녔으며, 일식과 월식('Disasters in the sun; and the moist star')이 앞으로 일어날 변란의 사자('precurse of [fear'd] events, /harbingers preceding still the fates/And prologue to the omen coming on')로 언급했다(*Hamlet*, 1.1. 112~25). Duncan 왕이 시해되는 날 밤에도 지진, 폭풍, 전례없이 밤새 이어진 새 울음소리 등의 이변이 있었으며(*Macbeth*, 2.3. 53~61), 하늘이 국왕 시해라는 인간의 범행으로 혼란에 빠진 듯 낮인데도 태양은 아직 밤에 가리워져 있고, 매가 올빼미에게 오히려 잡혀 먹히고, 말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천체와 자연계의 이변이 있었다(2.4. 1~18). Antony는 월식을 자신의 멸망을 예고하는 나쁜 징조로 풀이한다: 'Alack, our terrene moon/Is now eclips'd, and it portends alone/The fall of Antony!'(*Antony*, 3.13. 153~55). *R2*에서 한 대위는 월계수 나무가 모두 시들고, 유성들이 항성들을 위협하며, 창백한 얼굴을 한 달이 지상에 피빛을 보이는 자연과 천체의 이변속에서 Richard 왕의 운수가 다하여 그가 전사했을 가능성을 본다: 'The bay-trees in our country are all wither'd/Meteors fright the fixed stars of heaven,/The pale-fac'd moon looks bloody on the earth', 2.4. 7~9). Gloucester는 자신의 사생아 Edmund의 사기극에 놀아나 적자 Edgar가 부친을 살해하고 재산을 인수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이런 불효가 생긴 것을 최근에 있었던 일식과 월식의 영향으로 풀린다('These late eclipses in the sun and moon portend no good to us', *Lear*, 1.2. 103~4). 그는 이런 천체의 이변으로 인해서 예정이 식고, 우정이 타락하고, 형제가 갈라지고, 사회의 폭동과 불화, 궁정의 역모, 부자간의 유대의 파괴가 생겼다면서 세태의 타락상을 통탄스러워 한다(1.2. 105~14). *JC*의 2막 2장도 천체와 자연계의 이변과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점들을 갖고 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야밤중에 Caesar가 잠옷차림으로 일어나 하늘과 땅이 평화롭지 못한 밤을 말하고, 아내 Calphurnia가 꿈속에서 '“Help, ho! they murther Caesar!”'(3)라고 소리쳤다고 말한다. 이것은 분명히 당시의 천체이변에 대한 믿음으로는 Caesar에 대한 경고임이 분명하다. Calphurnia는 이 이상의 자연계의 이변을 전한다:

22) Clark, pp. 22~3.



A lioness hath whelped in the streets,  
 And graves have yawn'd and yielded up their dead;  
 Fierce fiery warriors fight upon the clouds  
 In ranks and squadrons and right form of war,  
 Which drizzled blood upon the Capitol;  
 The noise of battle hurtled in the air;  
 Horses [did] neigh, and dying men did groan,  
 And ghosts did shriek and squeal about the streets. (17~24)

이것은 확실히 Calphurnia가 풀이한대로 관행을 벗어나는 일('beyond all use', 25)로서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Caesar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정한 것이라면 피할 도리가 없는 법이며, 이 이변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일이라면서 계속 출타할 마음을 비친다. 그의 아내는 굶히지 않고 거지들이 사망할 때는 혜성이 보이지 않으나 군주들의 사망은 천체 전체가 이를 불꽃으로 알린다('When beggars die there are no comets seen;/The heavens themselves blaze forth the death of princes', 30~1)면서 집요하게 맞선다. 하인은 '복술가(augurer)'들도 짐승의 내장을 뜯어보았더니 심장이 들어 있지 않았다는 이변을 들어 Caesar의 출타를 반대한다는 소식을 가져 왔다(39~40). 드디어 Caesar는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아내의 충언을 받아들이나 이 때 역모자의 일원인 Decius가 등장하여 이 소식을 듣고, Calphurnia의 꿈을 교묘히 Caesar를 아침으로 유혹하는 해몽을 하여 Caesar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 만약 시지가 나약한 여인의 우매한 두려움 때문에 원로원이 주는 생애의 마지막 승리의 월계관을 쓰지 않는다면 세인의 조소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의 말에 Caesar는 결정적으로 설득당하고, 잠시나마 아내의 미련한 꿈에 넘어갔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예복을 가져오라고 말한다(83~107). 그의 그날의 출타는 죽음의 출타였다. 그는 분명한 초자연적인 경고를 무시했으며, 그 무시의 대가는 죽음이었음을 이 에피소드는 증거한다.

당시 점성가들은 별들이 사람의 운수를 알 수 있는 결정적 요소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태양의 항로를 황도대(Zodiac)의 표들(signs)로 구분하고 이것들이 지상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다. 어느 표 밑에서 사람이 태어나느냐가 그 사람의 성격과 운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TN*에서 Sir Toby는 자기가 다리와 무릎을 지배하는 Taurus 표 밑에서 태어났다('were we not born under Taurus?')고 말하며, *Much Ado*의 Beatrice는 'There was a star danced, under that I was born'이라 말한다. Kent는 'It is the stars;/The stars above us, govern our conditions'(*Lear*, 4.3. 32~3)라 말한다. Horatio도 별들, 일식들, 달 등이 닳아오는 인간의 악운들을 예고하는 전령들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하늘과 땅이 공동으로 드러냈다('stars with trains of fire.../Disasters in the sun; and the moist star/.../Was sick almost to doomsday with eclipse./And even the like precurse of [fear'd] events,/As harbingers preceding still the fates/

And prologue to the omen coming on,/Have heaven and earth together demonstrated/  
Unto our climates and countrymen', 1.1. 117~25)고 말했다.

한편 Edmund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일월성신에 돌리고, 태어날 때의 유성[별]의 영향으로 '술꾼, 거짓말쟁이와 간음자들(drunkards, liars, and adulterers)'도 되고, 음탕한 기질('goatish disposition')을 타고난다고 책임전가의 말을 한다(*Lear*, 1.2. 118~29)고 비웃는다. 이어서 그는 그의 부모가 용좌(Dragon)의 꼬리 밑에서 합방한 결과로 자신이 대웅성좌(Ursa Major) 밑에서 태어나 거칠고 음탕하게('rough and lecherous')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은 제아무리 정숙한 처녀 별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거칠고 음탕했을 것이라고 천체와 출생과 관련된 당시의 미신을 일축한다(129~33). Cassius는 주저하는 Brutus를 Caesar를 제거하는 역모에 끌어들이려는 의도에서 Brutus와 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사람은 누구나 한 때는 자신의 운명의 주인공이 된다면 그와 Brutus 등이 부하로만 남아 있는 것은 그들이 타고난 별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결점 때문이라('The fault, dear Brutus, is not in our stars/But in ourselves, that we are underlings'*JC*, 1.2. 140~1)고 사람의 운명이 어느 별 밑에서 대어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란 미신을 일축한다. 이와 유사한 대목은 셰익스피어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다. *All's Well*에서 Helena는 우리의 처방은 종종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데도 사람들은 하늘에 돌린다고 유사한 사상을 표현했다('Our remedies oft in ourselves do lie,/Which we ascribe to heaven', 1.1. 216~17)). 따지고 보면 Iago의 'tis in ourselves that we are thus or thus. Our bodies are our gardens, to the which our wills are gardeners'(*Othello*, 1.3. 319~20)도 이와 대동소이한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물론 Cassius는 죽는 자리에서 자신은 일체의 정조를 믿지 않는 Epicurus를 지지했으나 이제 마음을 바꾸어 정조들의 예고를 부분적으로 믿는다면서 Sardis에서 행군해 올 때 맨 선두 군기에 두 마리의 막강한 독수리들[천사들의 상징]이 내려와 앉아 군인들이 주는 음식도 받아먹으면서 Philippi까지 왔으나 오늘 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대신에 까마귀와 술개들이 머리위로 날아와서 마치 우리들이 그들의 먹이인 듯이 내려다본다는 말을 한다(5.1. 76~86). *IH4*에는 신봉자와 회의주의자(sceptic) 간에 의견 대결이 발생한다. 천체적 정조를 믿은 웨일즈의 지도자 Glendower와 이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Hotspur가 3막 1장에서 논쟁을 벌인다. 전자는 자신이 태어날 때 하늘의 이마가 불타는 불 바그니[체성들] 모양들로 충만했고, 지구는 겁쟁이처럼 거대한 체구를 떨었다고 하니 후자는 그런 일은 그가 태어나지 않고 그의 모친의 고양이 새끼를 낳았어도 그때 동일한 일이 여전히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전자의 미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이들의 논쟁은 끝까지 평행선을 그을 뿐이다(13~50). 우리는 이와 같은 미신을 Shakespeare 자신은 신봉하지 않음을 행간에서 읽을 수 있다. 다만 그는 대중 극작가로서 당시 유행되던 이런 미신들을 그의 극작품들에 심분 활용하여 관객들을 환대했다고 본다.

## VII.

이상에서 우리는 요정, 마녀, 혼령 등 16, 17세기의 초자연적 요소들을 개관하였고, 아울러 이것들의 극적 활용이 두드러진 *MND*와 *Tempest*, *R3*, *JC*, *Macbeth* 및 *Hamlet*을 중심으로 셰익스피어가 이 초자연적 요소들을 어떻게 그의 극작품들에 사용했는지를 비교적 자세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알아보았다. 거듭 되풀이하지만 Shakespeare는 그의 거의 모든 극에서 초자연적 생각들, 꿈들, 예언들, 별을 비롯한 천체의 각종 징조들, 이변들을 언급하고, 이것들을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십분 활용하였다.

또 우리는 지금까지 셰익스피어의 초자연적 요소들에 접근하는 배경지식으로 그의 시대에 유행한 민속적 믿음들(folk-lore/spiritualism/popular beliefs)을 혼령, 요정, 마녀 및 일월성신 등 천체와 그것의 이변들과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미신들을 Greene, Marlowe, Dekker, Middleton 등 그의 동시대 극작가들도 다 다루었으나 그들의 조잡한 혼령들과 마귀들, 마녀들 및 요정들과는 달리 Shakespeare의 것들은 세련되고, 사실적이고, 독창적인 태가 있어서 훨씬 인상적이고 위엄까지 부여받았다. Clark는 *Macbeth*에서 세 마녀 Weird Sisters가 전 극을 통해서 희스 황야와 움막에서 각각 한 번씩 모두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관객들이 이들의 존재를 시종 느끼고 있는 점을 들어 셰익스피어의 초자연적 요소에 대한 극적 이용을 천재적이라 평가했다.<sup>23)</sup>

우리는 Shakespeare 자신이 그의 시대에 유통된 혼령, 요정, 마녀 및 천체 혹은 점성술과 관련된 민속적 믿음들을 신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영국 르네상스 시대의 깬, 그리고 앞선 천재 시인인 그가 그것들을 글자 그대로 믿고 수용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이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관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극작가로서 그는 자신의 사사로운 입장을 초월하여 초자연적 요소들에 대한 그의 시대의 믿음들을 그의 극작품들속에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최대한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인간세계 혹은 자연 세계와 초자연 세계가 인간 Bottom과 요정 Titania가 만나 한 데 섞임으로써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 *MND*에서도 결코 두 세계의 구분을 흐리게 하는 신을 넘지 않은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셰익스피어의 초자연적 요소들은 그들의 위엄을 의연 견지했다. *Tempest*에서 Ariel은 인간 Prospero의 조종에 의해서이기는 하지만 항상 인간세계에 나타나 심부름을 하면서도 인간들과는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인간세계의 외부에서 행동한다. *Macbeth*에서는 마녀들이 플롯의 두 분기점에서 각각 한 번씩 오직 두 번 나타날 뿐이다. *Hamlet*에서는 혼령이 아들에게 복수를 당부하려고 오직 지상에 귀환한다. 이러한 절도있는 초자연적 요소의 활용으로 인해서 셰익스피어는 더욱 더 큰 극적 효과를 거둔다. 이러한 이유로 혼령들이 Richard III세와 Richmond에게 각각 나타나 파멸과 승리를 각각에게 예언할 때, Caesar의 혼령이 Philippi의 결전을 앞둔 시점에서 Brutus에게 흉조로서 나타

23) 동, p. 43.

날 때, Banquo의 혼령이 두 번 나타나 그를 살해한 Macbeth의 가슴에 공포를 심어 놓을 때, King Hamlet의 혼령이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과거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Macbeth의 마녀들이 주인공이 파멸하는 미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매우 큰 극적 감동과 충격을 아울러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자연적 요소들의 영향은 어디까지나 영향이지 인간이 스스로 이에 굴복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간들에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란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들은 기껏해야 소망을 전하거나 미래를 비취줄 수 있을 뿐 인간의 자발적이고, 자유의지에 의한 도움이 없이는 그들의 욕망이나 예언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셰익스피어의 초자연적 요소들은 Aeschylus의 극에서처럼 숙명성이나 불가피성을 결코 대변하거나 상징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Macbeth가 Thane of Cawdor가 되는 것은 마녀들의 마술의 결과가 아니라 전임자의 사망 때문이며, 그가 왕이 되는 것 또한 그 자신의 자유의지로 왕을 시해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마녀들의 유혹에 그가 넘어가는 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며, 마녀들의 강제가 아니었다. 더욱이 셰익스피어는 *Tempest*에서 Ariel에 대한 Prospero의 완벽한 지배를 통해서 초자연적 요소가 인간의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순전히 인간에 달려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었다.

이미 앞에서 셰익스피어의 어떤 성격은 초자연적 요소들의 인간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면 어떤 성격은 모든 것이 인간 자신에게 달렸을 뿐 인간사가 초자연적 요소들의 영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란 견해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다. 우리가 이 대립되는 두 견해들 중에서 어느 것이 과연 셰익스피어를 대변하는, 셰익스피어 자신의 개인적 견해인지를 밝힌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셰익스피어가 개인적으로, 그의 시대를 산, 작가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이들 초자연적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그의 시대에 유통되던 민간 믿음들을 사사로운 입장에서 보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의 극작품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배우인 동시에 극작가로서 셰익스피어는 초자연적 요소가 지닌 대중적인 인기를 직업적으로 외면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계층과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마녀들과 마술(witches and witchcraft), 무당들과 마귀쫓아내기(exorcists and exorcism), 점성술가와 점성술(astrologers and astrology), 주문으로 귀신 불러내는 자들과 주문(conjurers and spells/charms or spirit-raising), 환영들과 환각들(visions and phantoms or hallucination), 점쟁이들과 점(soothsayers and soothsaying, prophecy or divination)은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초자연적 요소를 극작품에 활용한 16, 17세기 작가들은 많았다. 그러나 그 어느 셰익스피어의 동시대 극작가도 초자연적 요소를, 위에서 거듭 강조했듯이, 셰익스피어처럼 그렇게 극의 플롯과 액션을 주도하고 끌고 나아가도록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드물었다. 셰익스피어가 초자연적 요소를 독창적으로, 발전적으로 활용하여 극적 효과를 극대화시켰다는 사실은 바로 극작가로서의 그의 우수성과 진면목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점들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셰익스피어의 초자연적 요소의 극적 활용은 그의 극예술의 미점이요 수월성이므로 당연히 그의 다른 뛰어난 극적 장점들과 마찬가지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 Abstract

## The Supernatural Elements in Shakespeare

Kyungshik Lee

It is difficult to think of any Shakespearean play which does not reflect one way or another popular beliefs and superstitions of his day regarding such supernatural elements as ghosts (spirits), fairies, and witches. But *R3*, *MND*, *JC*, *Hamlet*, *Macbeth* and *Tempest* are, among others, the plays whose supernatural elements play a very prominent part with their participation in and influence upon their plot and action. The present article aims at introducing spiritualism or popular superstitions, supernatural and astrological, that were current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in general and in Elizabethan and Jacobean England in particular by way of providing a background knowledge of Shakespeare.

For this purpose have been discussed somewhat in detail four representative source-books which include Lavater's *De Spectris* (1572; R. H.'s English translation, *Of Ghostes and Spirites Walking by Nyght*, 1572), Scot's *Discouerie of Witchcraft* (1584), Le Loyer's *III Livres de Spectres ou Apparitions et Visions d'Esprits* (1586; Z. Jones's English translation, *A Treatise of Specters or straunge fights, Visions, and Apparitions appearing sensibly unto men*, 1605, includes BK I only), King James's *Daemonologie* (1597) and 'Discourse vpon Diuels and Spirits' added to Scot's 1665 edition of *The Discouerie of Witchcraft*. Both books by Lavater and Le Loyer which represent respectively the then Protestant and Catholic views of ghosts together with the 'Discourse vpon Diuels and Spirits' have much bearing on Shakespeare's ghosts in general and King Hamlet's ghost in particular, and both books by Scot and King James on Shakespeare's witches and witchcraft in general and *Macbeth's* witches in particular. In a nutshell, Catholic Church embraced the then ghost-belief that the ghost of the departed could return to earth from the Purgatory to visit his family and friends with various intents, whereas the Protestants who rejected the existence of the purgatory did not believe in such a ghost unless it was a devil which could

assume whatever shape it pleased to do harm. Scot was sceptical about the existence of witches and witchcraft and therefore did not approve of the indiscriminate witch-hunting and severe punishment of witches, but King James was a firm believer not only in their existence but also their harmful ways and evil practices, and as a result he did what he could to arrest alleged witches and to punish them.

Shakespeare was not the only playwright who utilized the supernatural elements and superstitious traditional beliefs for his plays, but the only one who made use of them in such a way that the supernatural elements like fairies, ghosts and witches played a very vital role and influenced the plot and action of the play. *Hamlet* without King Hamlet's ghost, *Macbeth* without the Weird Sisters, and *MND* and *Tempest* without their fairies would simply be inconceivable. It is no wonder that his plays are often called rich source-books for folk-lore.

In conclusion, Shakespeare's creative use of the supernatural elements and traditional popular beliefs achieved the maximum dramatic effect, thus demonstrating Shakespeare's excellence as a playwright.